

지  
태  
방  
이  
야  
기

정  
혜  
사

24  
호

남  
은  
이  
야  
기

정혜사 편집부



# 지 대 방 이 야 기

정  
혜  
사

24  
호

남  
은  
이  
야  
기



정혜사 편집부



## < 차 례 >

- ☼ 치문반 동안거 / (법운) 치문-24
- ☼ From 村 To 村 / (해안) 치문-24호
- ☼ 하루하루 / (일행) 치문-23호
- ☼ 종 치는 종 / (여공) 치문-23호
- ☼ 은사님께 / (남전) 치문-24호
- ☼ 여름안거를 맞이하면서 / (진봉) 치문-23호
- ☼ 어머니의 눈물을 안고 / (지명) 치문-24호
- ☼ 아직도 먼 길 / (해여) 치문-24호
- ☼ 송광사 강원에 살고 싶은 108가지 이유 / (대정) 치문-24호
- ☼ 聲 / (용은) 치문-23호
- ☼ 무제 / (일행) 치문-24호
- ☼ 무제 / (용은) 치문-24호
- ☼ 무제 / (본공) 치문-24호
- ☼ 무제 / (법운) 치문-23호
- ☼ 무제 / (무영) 치문-23호
- ☼ 글에 관하여 / (연성) 치문-24호
- ☼ HAPPY DAY / (해명) 치문-23호
- ☼ 절집인연 / (혜관) 사미-24호
- ☼ 나의 꿈 / (보원) 사미-24호
- ☼ 참회 제일 존자 / (무안) 사집-23호
- ☼ 回光返照 / (도연) 사집-23호
- ☼ 친구 / (혜천) 사집-23호
- ☼ 不信自殊勝 하고 甘爲下劣人也리 / (정공) 사집-23호
- ☼ 무제 / (청산) 사집-23호
- ☼ 무제 / (도근) 사집-23호
- ☼ 오도송 / (승법) 사집-23호
- ☼ 공양 이후의 것들 / (수진) 사집-23호



# 치문반 동안거

법운(法雲) / 치문-2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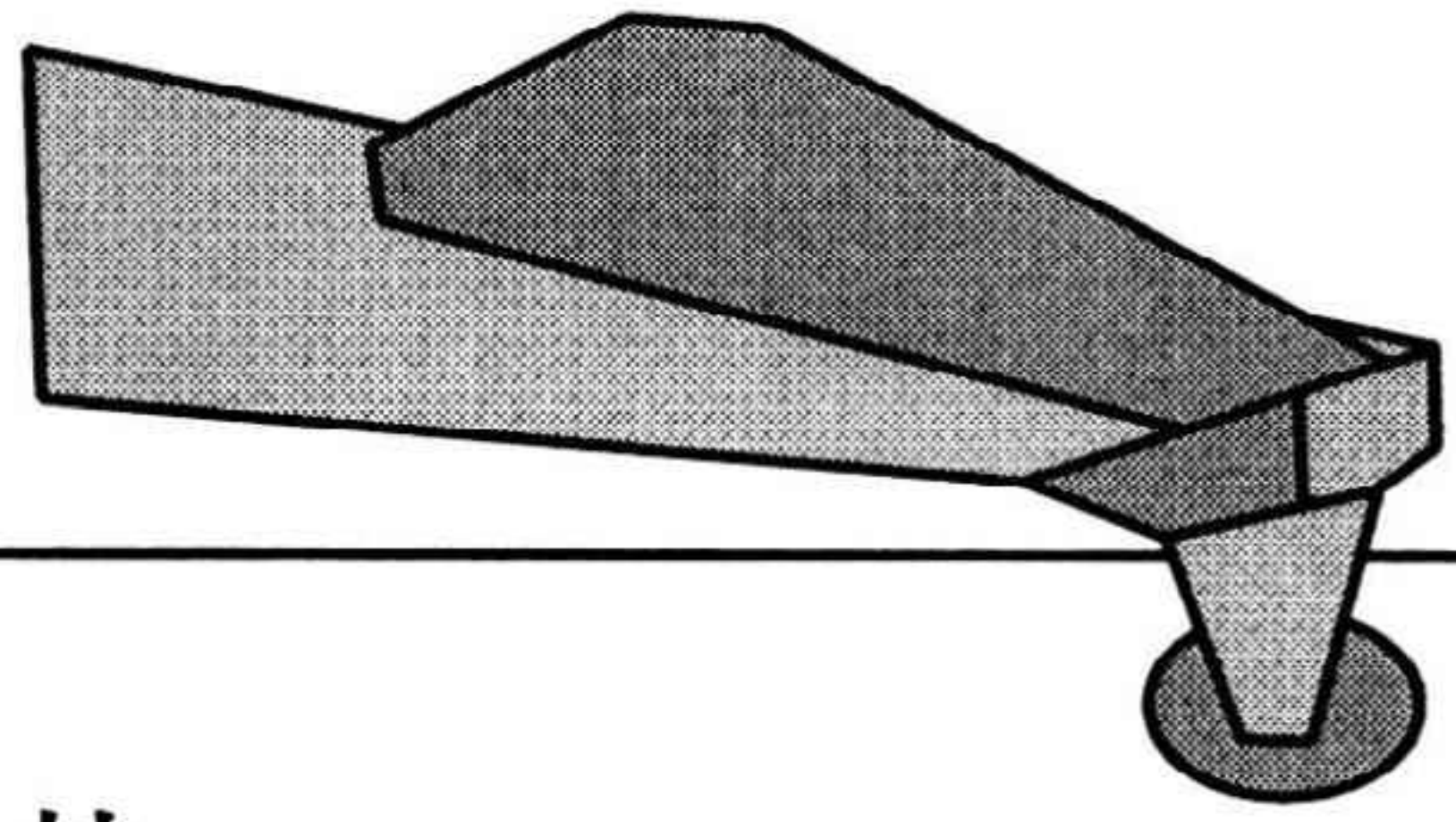
방을 짜고 안거를 시작한 것이 두 번째다. 이 많은 대중이 각자 맡은 소임과 수행 정진하느라 신사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스님이 되어서는 늘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안거라고 하는 단어는 왠지 무겁게 다가온다.

대중처소에서 보는 스님들의 모습은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든다.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해서 행주좌와에 늘 생각하고 수행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고독한 싸움의 연속이라는 따분함도 언뜻언뜻 느껴진다. 선배스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도인되기는 쉬워도 중노릇 잘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 가슴 속에 더 어루만져진다.

처음에 불교를 대하고 기도를 하면서 한철을 보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지도해 주시던 스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선방문고리만 잡아도 지옥고는 면한다. 이렇게 수행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앉아봐라. 비유하자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은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총과 실탄은 생명이니 화두 하나 잘 챙기고 또록또록하게 살아라."

일상을 살면서 항상 생각하고 나 자신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몸과 마음과 뜻이 항상 일치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중생의 업식 때문에, 나도 피곤하고 주변에 잘 살아가는 도반스님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면서, 내일이면 오늘보다는 나은 내 모습을 바라보며 치문반 생활을 알차지는 못하지만 내 나름대로 굴러가는 순리에 맞추어서 인생에 한번 밖에 없을 치문반 동안거를 회향하는 날까지 열심히 정진하고 정진할 것이다.





## From 村 To 村

해안(海眼) / 치문-2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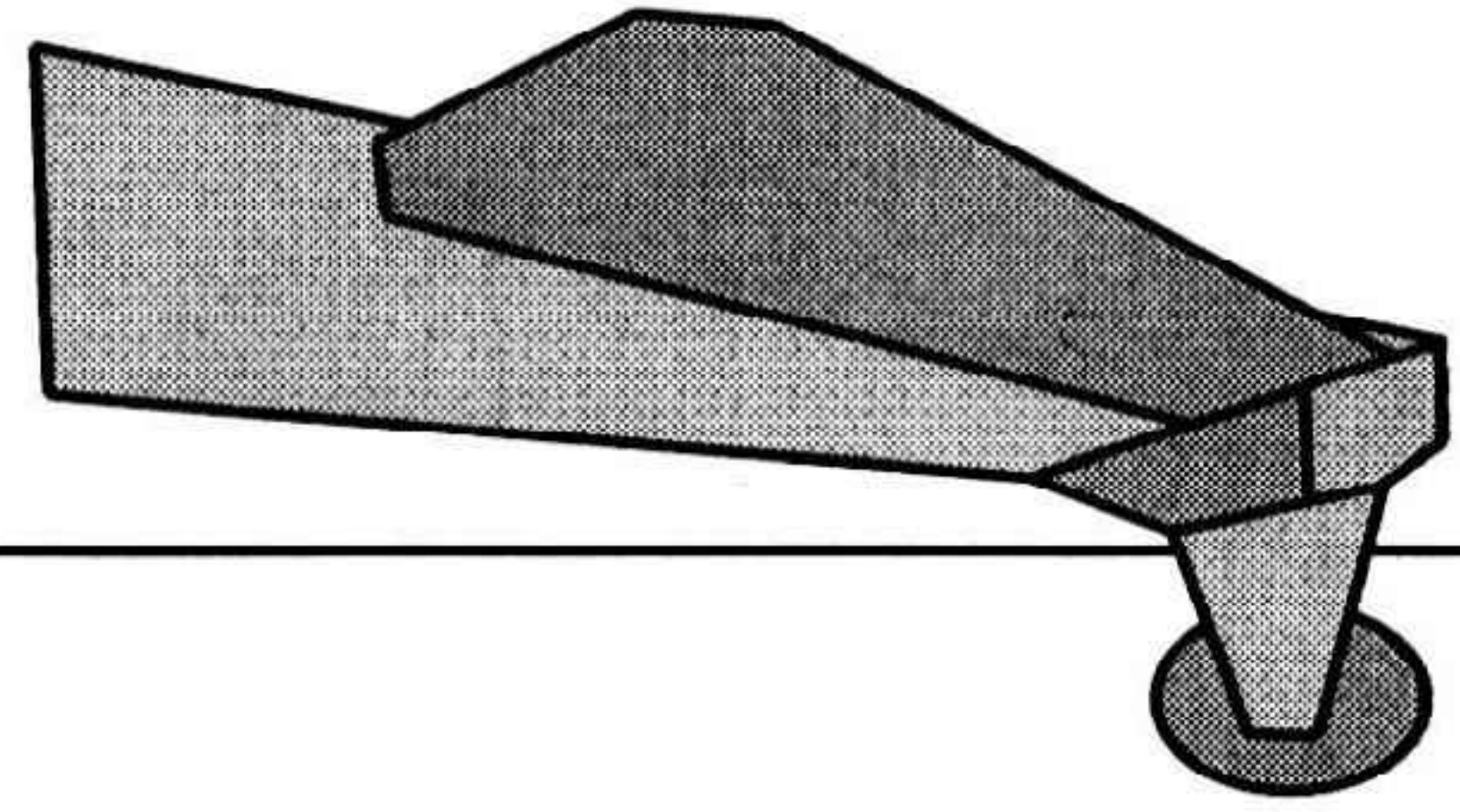
은사 스님께 처음에 인사했을 때 당연히 어디서 왔냐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London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은사스님이 “영구 촌놈 왔구만!” 이라고 하셨습니다. 송광사 행자실에서 사는 것은 힘들었지만, 참 재미 좋았습니다. 인원도 없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어도 우리들끼리 항상 조화로운 마음으로 지낸 것 같아요. 일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여기 저기 행자 생활 하면서, 좋은 수행 도량 찾기 참 어려웠습니다. 영국에서 구산스님 책을 보면서 ‘불일국제선원’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한국에 왔을적에 인연에 따라 부산으로 갔습니다. 항상 대중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절에서 출가했어요. 그 절에서 무술공부하는데 제가 선수행 하기 위했으니까 크게 불만족함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어사로 갔습니다. 며칠 있다가 저의 (전)은사스님한테 잡혀가지고 참회시켰습니다. 참회하고 나서 제가 다른데로 갔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송광사로 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때 다른 송광사 행자님들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 잘 몰랐어요. 외국인 행자 보기 참 신기했겠어요. 특히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행자 방장 저한테 아주 잘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자실에 들어갔어요. 제가 간상소임 맡게 되었는데, 그 당시 간상행잔님 장난 좋아하게 생겼습니다. 그 행자도 영어할 줄 알았으니까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한국말 잘 몰랐으니까 저를 한국어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장난 좋아하니까 저한테 아주 희한한 말 가르쳐주었어요. 행자 방장 저를 볼 때 마다 “영국에서 이런 것 있어요?”

물어보기 좋아하니까 좀 귀찮았으니까 제가 아주 재미있게 대답했어요 “영국 잘 못사는 나라라서 이런 것 없어요.”

“우리는 영국에서 흙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우리는 직접 돼지나 손으로 잡아요.”

“전기 없으니까, 우리 흙집뒤에 자전거 발전기 있어요. 10분 동안 타면 1시간 동안 전기 있어요.” 저의 행자사절 참 재미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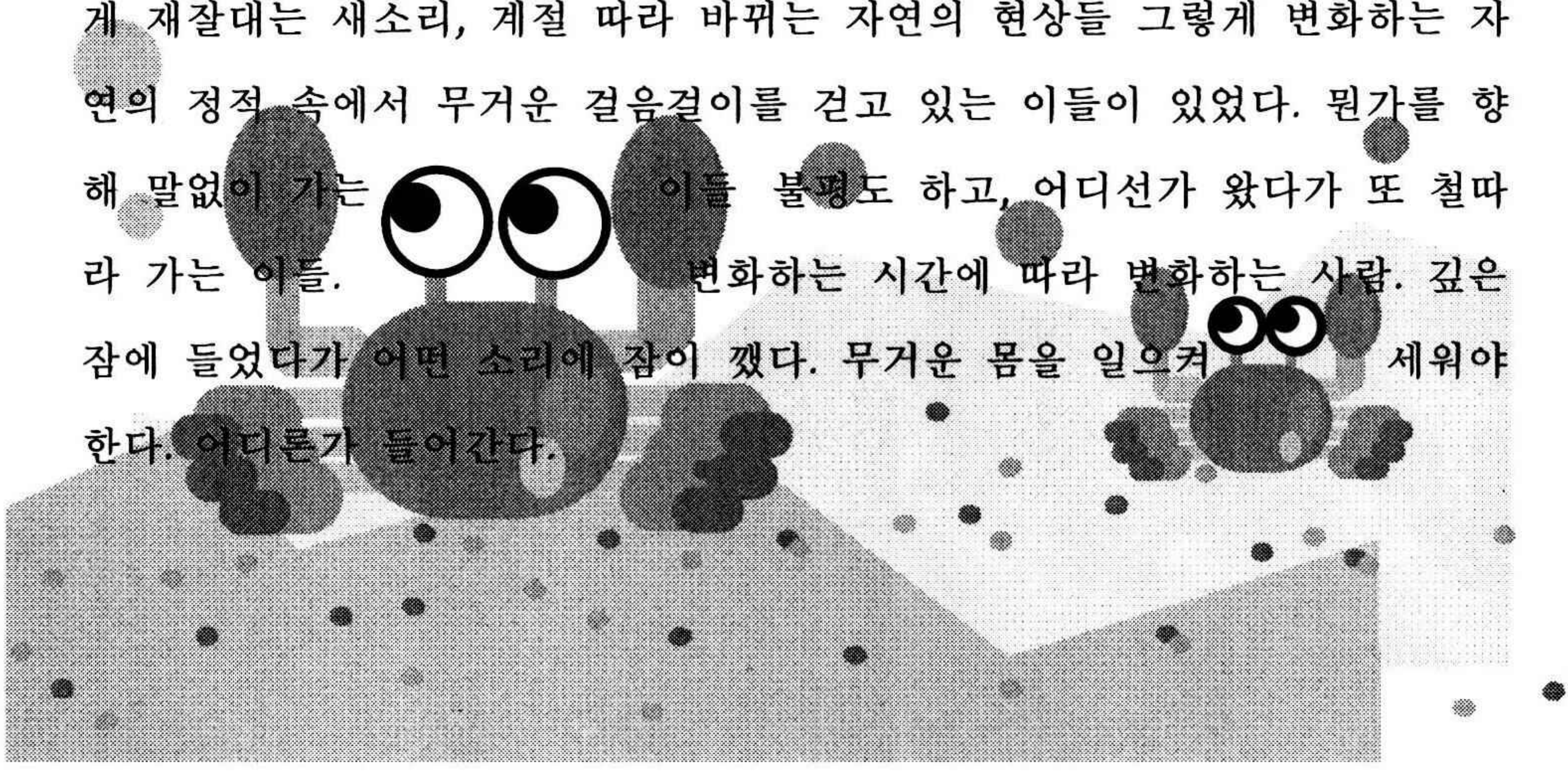
## 하루하루

일행(一行) / 치문-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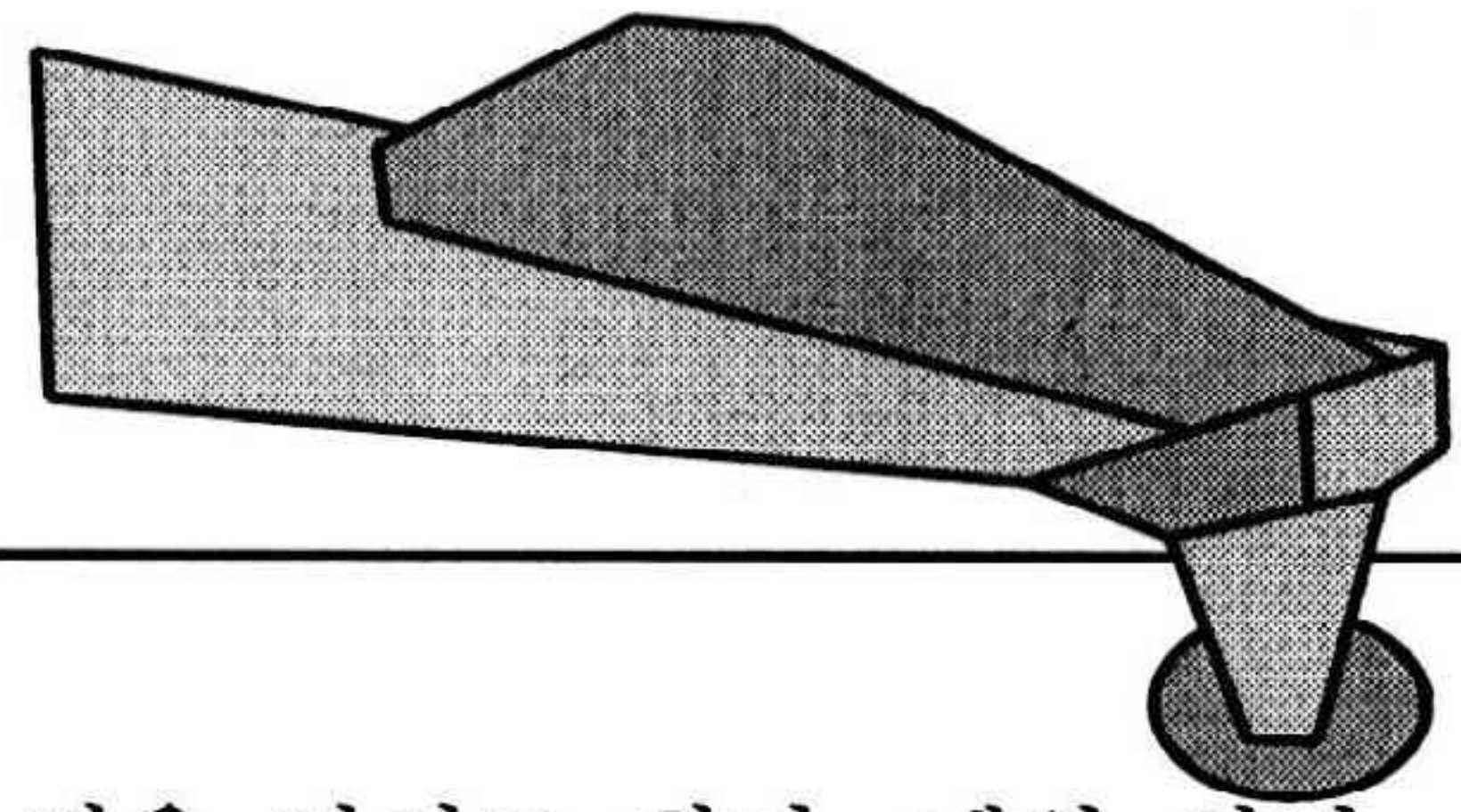
광활한 우주 조그만 흙덩이 위에 생명체들이 자기 잘난 멋에 살고 있다. 과거 태초부터 앞으로 기약할 수 없는 미래 시간대에 비하면 순간적인 삶을 살고 있다. 마치 지금 이 시간이 이 삶이 전부인 양 말이다. 그 생도 길다고 허비하기도 하며 불평하기도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녀갔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갈 건지 모른다. 또 얼마나 다양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다.

드넓은 우주 공간과 과거, 미래가 느껴지지 않는 시간대 속에서 그래도 뭔가를 찾아 깨닫고자 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 고개 숙이고 묵묵히 가고 있다. 열망 있는 이도 있고 아무런 의욕도 보이지 않는 이도 보인다. 여러 부류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수많은 생각과 번뇌, 깨달음 등 보이는 것만큼 명  
청해 보이지는 않는다. 주위의 숲은 너무 조용하다. 푸른 나무 앞에 어울리  
게 재잘대는 새소리, 계절 따라 바뀌는 자연의 현상들 그렇게 변화하는 자  
연의 정적 속에서 무거운 걸음걸이를 걷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 뭔가를 향  
해 말없이 가는 이들 불평도 하고, 어디선가 왔다가 또 철따  
라 가는 이들. 변화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람. 깊은  
잠에 들었다가 어떤 소리에 잠이 깼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어디론가 들어간다.







열심히 목청을 세워 염을 하고 어디에다 절을 많이도 한다. 매일 한다. 하지만 뭔가 틀리다. 비가 오려나? 했더니 비가 오고 있다. 벌써 날씨까지도 몸이 예측한다. 서로가 바빠 움직여 흩어졌다가 모이고 비좁은 공간도 마다 않고 모여들었다가 한참 시끄럽다. 또 더 큰 공간으로 움직인다. 소리도 질러보고 목이 잠기도록 내 질러본다. 이내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는지 앓아 있으면서도 눈이 감겨있다. 찢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잔다. 어제 피로가 아직 가시지 않았는가보다. 먹기 위해 줄을 지어 앓아 있다. 아직도 즐기고 있다. 여럿이 같이 하기에 피곤함이 더 한가 보다. 정신없이 죽비소리에 맞춰 배를 채운다. 태양이 떠오르고 뭔가 얻기 위함인지 열심히이다. 나도 모르게 하루의 해가 저물고 태양이 넘어감을 지켜본다. 어두컴컴한 밤이 오기도 전에 이미 잠이 든 느낌이다. 매일 이렇게 보내지만 수많은 생각과 고민. 가야 될 길을 생각하며 즐기고, 먹고, 모여 떠들고, 웃고, 찡그리고, 귀따갑게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감정은 별로 관심이 없다. 하루 할 일을 마치고 하루가 간다. 밤에 앓아 있으니 하루가 짧고 세월이 빠름을 조금 실감한다. 눈을 떠서 앓아 있다가 곧 잠이 든다. 또 일어나 잠이 든다. 세월이 빨리 지나감이 느껴진다.

갈 길은 창창한데 몸이 무겁다. 하지만 힘을 내서 가야 된다. 시간이 아까움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느끼질 못하는 것 같다. 말없는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열심히 살아야 됴를 불평불만도 필요 없고 각자 해야 될 일만 묵묵히 하고 자기에 맞는 삶을 살라고.





## 종 치는 중

여공(如空) / 치문-23호

시작이다  
끝이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든 것들

태어남이다  
죽음이다  
三界의 부딪힘이  
여기에 하나로

가장 먼저이고  
또 가장 나중에서  
사이사이  
아우성 멈추고  
그저 바라볼지니.

### 2

#### 마지막

송광사 강원에 방부들인 지 벌써 두 달이 되어가니 바쁜 일과처럼 후다닥 지나가는 것이 이곳의 시간인 것 같다. 스물 셋째인 나는 치문반의 제일 마지막이다. 강원 생활에 대해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었던 터라 보이는 모두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 새벽에 큰방에서 인사를 드릴 때 대중 스님들의 '반갑습니다.'라는 소리에 비로소 내가 송광사 강원에 들어 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보다 먼저 치문반에 들어오신 스님들은 행동하는 것들이 잘 조율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라는 물음이 되뇌어지게 되었다. 익숙하지 않은 발우공양에, 처음에는 공양이 입으로 들어가는 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허둥거렸다. 방학 때도 발우공양을 하는 지라 정말 힘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습관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고 하겠다. 보름의 묵언기간이 지나고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은 새벽 3시에 도량석의 목탁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내 머리 말의 벽 쪽에 걸려 있는 달력을 하루하루 없애는 일이었다. 새벽에 잘 일어나는 터라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때는 봄 산철이 끝나고 하안거가 한달이 지났다. 산철이라는 말도 이곳 강원에 와서 처음 들었다. 이렇게 강원생활에 예비지식이 없는 터여서 치문반의 마지막인 나 如空은 제일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무엇이든지 가장 나중이다. 소임 정하는 일, 휴가 정하는 것, 앉는 것, 걸어가는 것 등 모두가 제일 나중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불 드리러 안행하면서 각 단에 삼배 드릴 때만이라도 조금만 기다렸다가 앉아 갔으면 좋겠다.

치문반의 마지막인 송광사 강원의 마지막인 나 如空이는 마지막처럼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마지막의 습관이 잘 들어질 것이니까! 그리고 온갖 굳은 일을 잘 맡아 할 것이다. 지금은 큰방 소임으로 종치고 목탁치고 공양 준비하고 청소하고 바쁘지만 송광사의 마지막이라 는 생각으로 기다릴 줄 아는 여유로 앞으로의 치문반 생활을 해나가겠다.



# 은사스님께

남전(南泉) / 치문-24호

도량 내에도 겨울의 찬바람은 위세를 자랑하는 듯 예불 하러가는 스님네들 장삼자락을 잡아채는데, 은은하기만 하던 저 보름달 빛 힘없이 바짝 얼어붙네요. 그래도 스님께서는 공부하여 道人이 되어야 한다고 격려하시며 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고 바라보시던 그 눈길이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화를 받고 스님께서 법주사에서 기획 소임을 보시며 건강히 지내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폴쩍 뛰며 소리를 지르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저 인사 몇 마디 나무고 말았었지요. 스님께서 사심 없이 살아오심을 불보살님들께서 증명이라고 하시는 듯 여러 가지 장애를 뛰어넘어 불편 없이 이렇게 법체 건강히 지내시니 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저는 송광사 강원에 있으면서 생활상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곳 도반 스님들은 모두 성실하고 인정이 많아서 여기에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힘든 일도 도반스님들과 함께하면 힘이 드는 줄도 모르니 땀으로 맺어진 정이 깊어짐을 저절로 알겠더군요. 간혹 스님들 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중이 워낙 많다보니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 가운데서 人間事 가운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등 여러 가지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것이 재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제가 송광사에 간다고 할 적에 스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죠. 건강하라고, 그리고 기도도 계속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당부도 하셨죠. 그런데 이곳 분위기가 엄격하기가 서릿발 보다 더하므로 스님께서는 그런 걱정을 좀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제 몸 잘 다스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간 후에 방학이 되어야 찾아 뵈 수 있겠군요. 스님은 보약도 한 첩 안 드시고 일만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염려스럽습니다. 약도 잘 지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줄이려 하오니 스님! 법체 건강히 겨울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 여름안거를 맞이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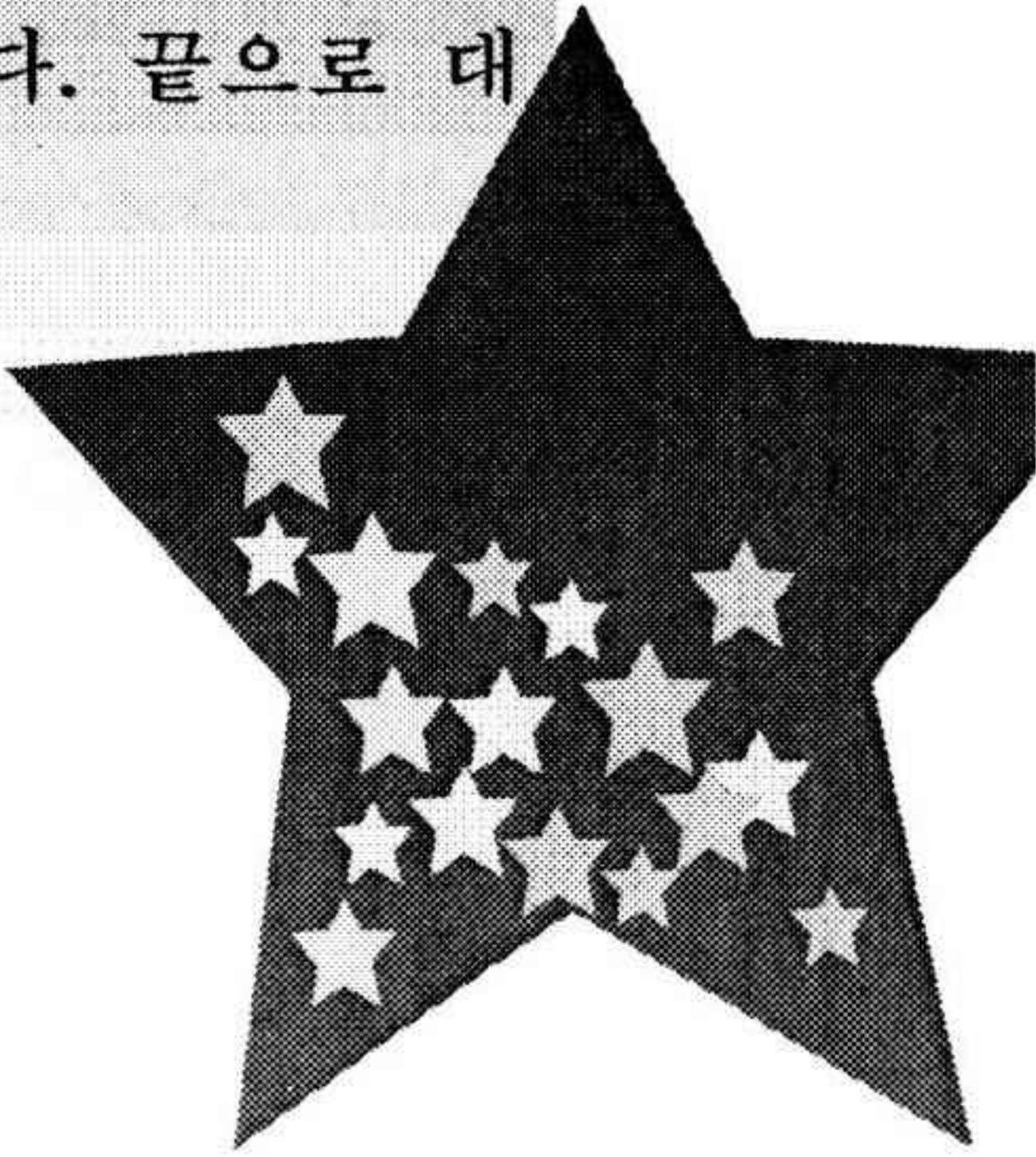
진봉(珍奉) / 치문-23호

송광사 도량주위의 모든 산봉우리마다 청산녹수의 빛으로 물들고 이름모를 새들이 저마다 정겹게 지저 울고 간경하시는 송광사 대중스님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집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하안거가 성큼 중반으로 다가오는데 여러 대중스님들과 더불어 이 무더운 여름안거를 잘 참고 인욕행을 닦아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에 다짐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 큰방소임을 살면서 생활을 해보니 바쁘고 힘은 좀 들어도 여러 도반들과 서로 의논하면서 탁마하고 모르는 부분의 행의습의도 하다보면 보고 또 물어보고 자꾸 눈여겨 보다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습을 바로 잡는 것이 이렇게 힘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 번 보고 스스로 알아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갈 때 여러 대중과 도반들이 편하겠다는 생각은 나 자신 말고도 여러 스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 실수도 있고 잘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의 말보다는 오히려 잘 모르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습의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도반을 생각하고 같이 더불어 수행을 탁마하는 송광사 전통강원의 학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하여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해서 그 도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도반을 생각하고 이 무더운 여름안거를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수행자로서 머트러운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윗 선배님들로부터 경책의 참회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의도 바로 고쳐지고 올바른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도반 여러분 그래도 송광사는 전통있는 도량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탁마 수행하는 승가도량이 아닙니까.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요. 부드러운 도반의 말 한 마디가 미묘한 수행의 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대중스님들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이 무더운 여름 안거를 잘 보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어머니의 눈물을 안고

지명(智明) / 치문-24호

작년 3월 처음 송광사로 출가한다고 집을 나섰을 때 어머님께서 문밖으로 배웅해 주셨습니다. 아직 늦겨울이라 추운 아침이었는데 설거지를 하시던 허름한 차림으로 계속 따라 오셨습니다. 냇가 위 다리를 지나 도로 쪽으로 말없이 따라 오시는 어머님께 그만 돌아가시라고 손짓을 하며 돌아서는 순간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마냥 흘러내리는 눈물을 두 손으로 계속 닦으며 속으로 글을 모르시는 어머님께 멸하지 않는 불법을 전해 드리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약한 신심 탓인지 1주일도 넘기지 못하고 새벽에 일주문을 나와 집으로 돌아 왔는데 이번엔 어머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으시더군요. 다시 송광사로 돌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매일 트랙을 돌로 수영, 등산을 그리고 편도선 제거 수술까지 하고는 1주일 동안 고열과 목에서 흘러내리는 핏덩어리를 닦으며 준비하고서 다시 송광사로 갈 때는 설거지 하시며 아침 밥 먹으라는 어머님께 살포시 미소만 보이며 아무 말 없이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행자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공양주 소임을 보던 중 별좌스님이 던지는 말 한마디 큰방에서 원하는 조건, 그리고 사중스님들의 비위에 일일이 다 맞춰낸다는 것이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누룽지 굽으며 솔 닦다가 속으로 '하산하자' '아냐 힘내자 견디자'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눈 내린 오후 나무로 불대며 쌀을 솥에 넣고 내려오던 중 디딤목을 잘 못 디더 뒤로 넘어졌는데 아픈 걸 참고 아니 아플 겨를도 없이 밥을 하고 저녁 예불을 마치고 양말을 벗으니 발바닥이 찢어져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절뚝거리며 지내다 어느 날 새벽 예불 도중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차라리 다른 절에 가서 다시 행자 생활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땀과 마음고생으로 이 스님들께 밥 해 드리기 싫다' '그래 선암사로 가자'

원주 스님께 조용히 찾아가 말씀드리니 2시간 동안 설득 하셨지만 끝내 오후에 행자복을 그대로 입고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방한모와 목도리를 하고 차를 부를 테니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쓸쓸히 그리고 따뜻한 애정과 자정정성이 느껴지는 뒷모습으로 돌아서신 원주스님 몰래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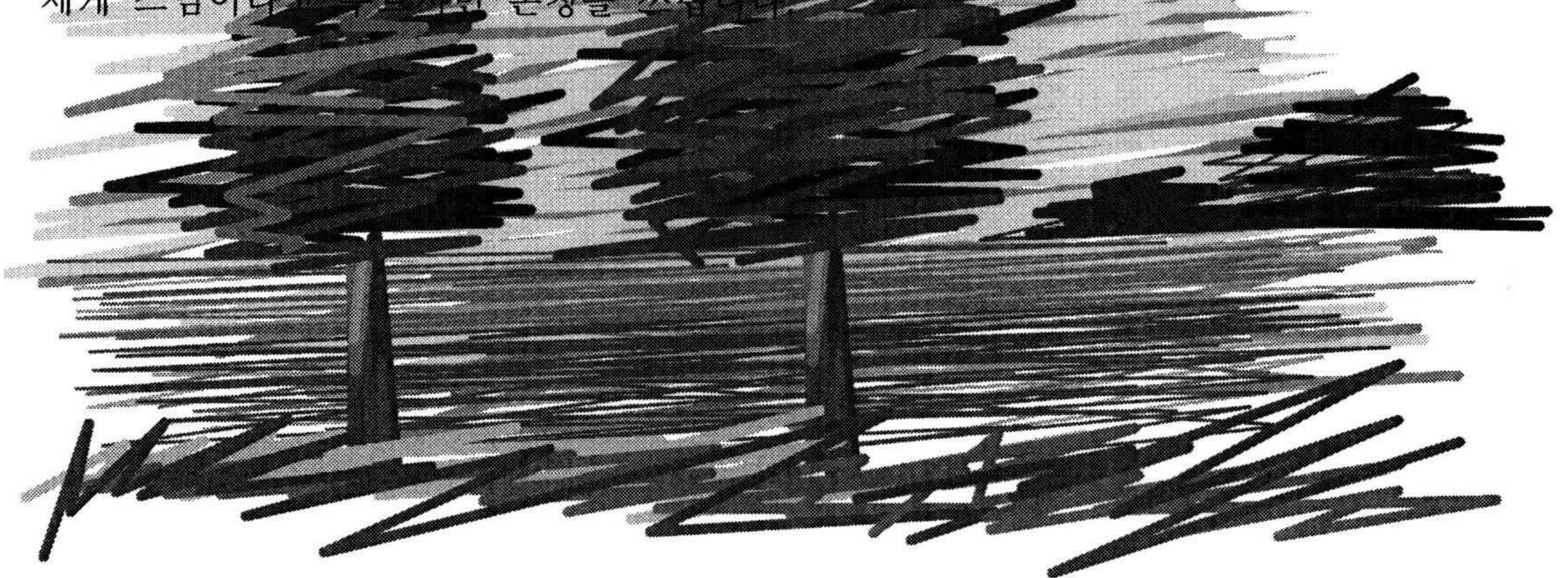
전날 많은 눈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고 인적은 물론 차량도 없는 길을 내려오는데 강원 스님과 강원 스님과 부딪쳤는데 '행자님 어디가십니까?'라는 말에 뭐라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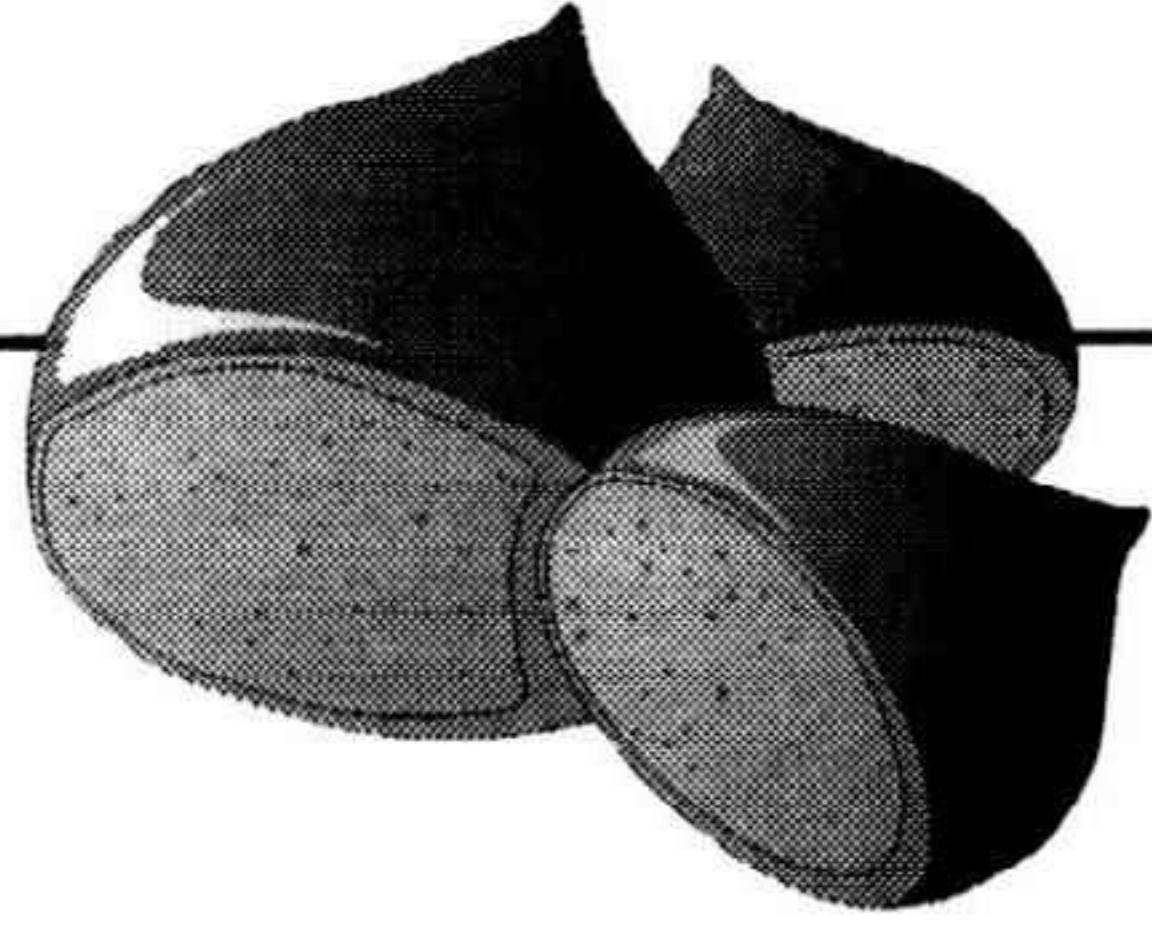


‘선암사로 갑니다.’라고 당당하지 못한 눈과 소리로 얼른 내려와 집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마침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4개월 만에 들어 보는 정겨운 목소리였는데 ‘민호입니다’라고 말하니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명은 받았느냐?’ ‘출지는 않느냐?’ ‘부처님 시봉하기 고생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저 선암사로 갑니다. 라고 말하니 영문도 모르고 마냥 우시며 ‘왜?’라는 짧은 질문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선암사에 행자 복을 입고 들어서니 스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시더군요. 총무 스님이었나 봅니다.

‘송광사에서 모 견딘 사람이 여기서 견뎌 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시더군요. 맞았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송광사에서 힘들다고 이 곳으로 도피하여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암사 원주 스님께 내려간다고 말씀드리고 송광사로 전화해서 원주스님께 아직 저를 붙잡아 주실 수 있으십니까?’라고 울면서 물으니 ‘아무 부담 느끼지 말고 다시오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소리였는지 모릅니다. 통화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전화했는데 어머니께 다시 송광사에 들어간다니 거뿔의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하여튼 무척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얼음이 언 냇가의 흐르는 물을 보며 마냥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다는 마음다짐과 눈물이 고여 있던 중 선암사 원주스님께서 봉고차를 타고 버스정류장으로 내려오셨는데 시장 가는 길이라 하셨지만 저를 찾아 오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송광사로 간다니 반가워하시며 승주까지 태워주신다고 하셔서 같이 오는 길에 용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선암사에서의 추운 겨울날의 하룻밤이었습니다. 스님들이 무척 여법하게 사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선암사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청정한 비구스님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계를 받고 속가가 있는 마산으로 네 번 갔지만 속가에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1주일도 되지 않아 송광사에서 내려오자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아 버리셨던 법사님만 찾아보고 인사드립니다. 어느 때 속마음을 아셨는지 부모님과 같이 따라 죽을 때까지 일족해 버리십시오. 가끔 어머니께 전화를 하면 아직도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게 스님이라고 부르면 존칭을 쓰십니다.







## 아직도 먼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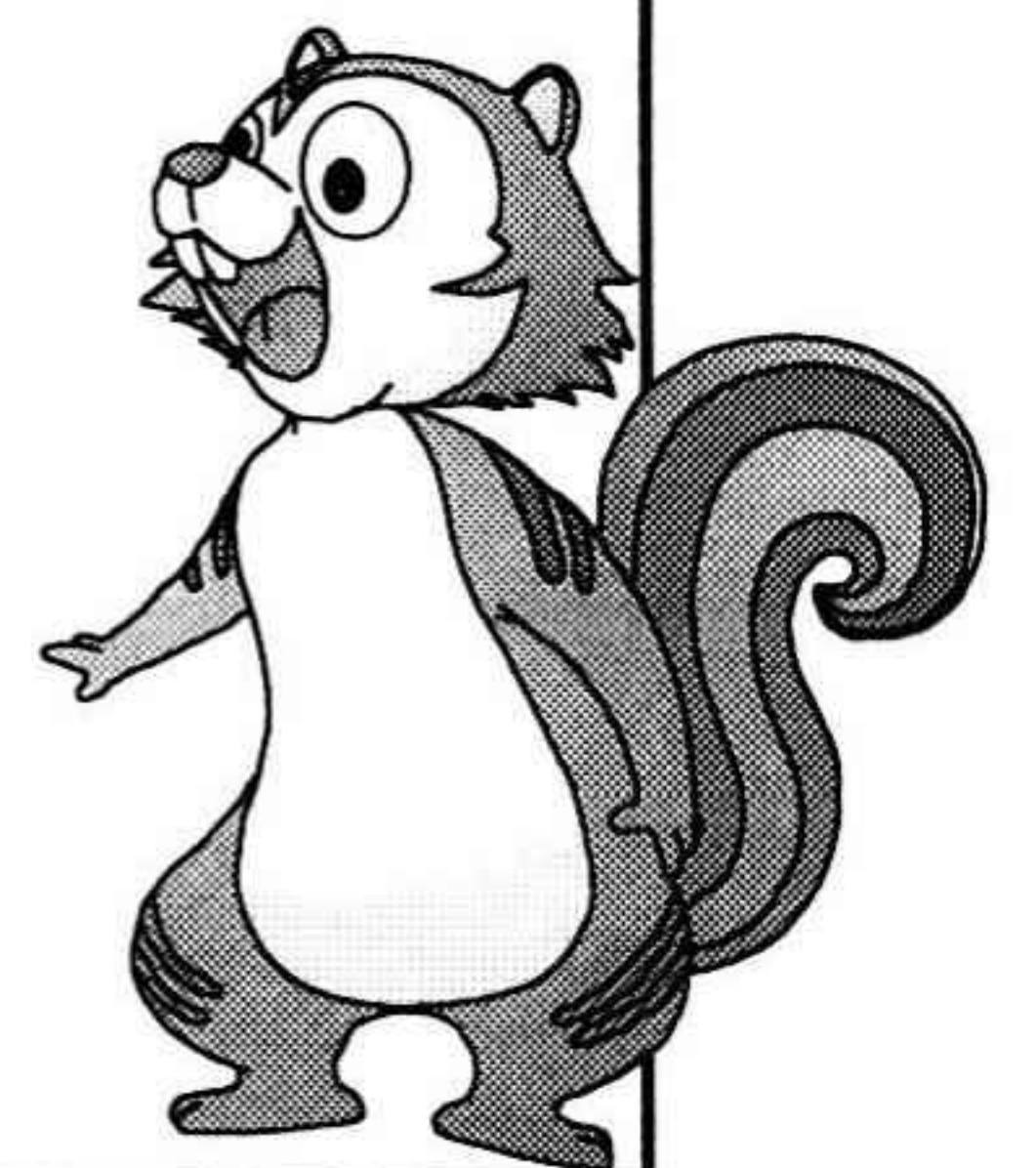
해여(海如) / 치문-24호

언제나 울리는 새벽 목탁소리에 오늘도 잠에서 일어난다. 바삐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 마음만은 느긋하자고 다짐하건만 며칠 전인가 도반 스님이 뒤따라오면서 “이건 Racing이 아냐”라고 살며시 투덜거린다. 가슴 한편에선 뜨끔거리지만 짐짓 모른체하고 그냥 가버렸다. (부끄러워서) 송광사에 온 것이 아득하게 느껴지지만 아직도 치문에서 먹고 자고 있다. 뭔가 쫓기듯이 찾아온 곳이었던만 뭣이 그렇게 못마땅했는지 생활이 어렵게 다가온 때가 많았다. '뭔가 다른 것이 있겠지' 최소한 수행자로서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겠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어리석음을 자조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있었다. 언젠가 도반 스님이 위로하면서 누가, 외부적인 환경이 그대를 운영 짓도록 하지 말고 그대가 주관자가 되는 것이 어떠냐고 아하 그때의 부끄러움이란 무엇에 비유할꼬. 팔만사천 법문을 다 외워도 “心“하나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환경을 탓하면서 못난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려다 들켜버린 꼴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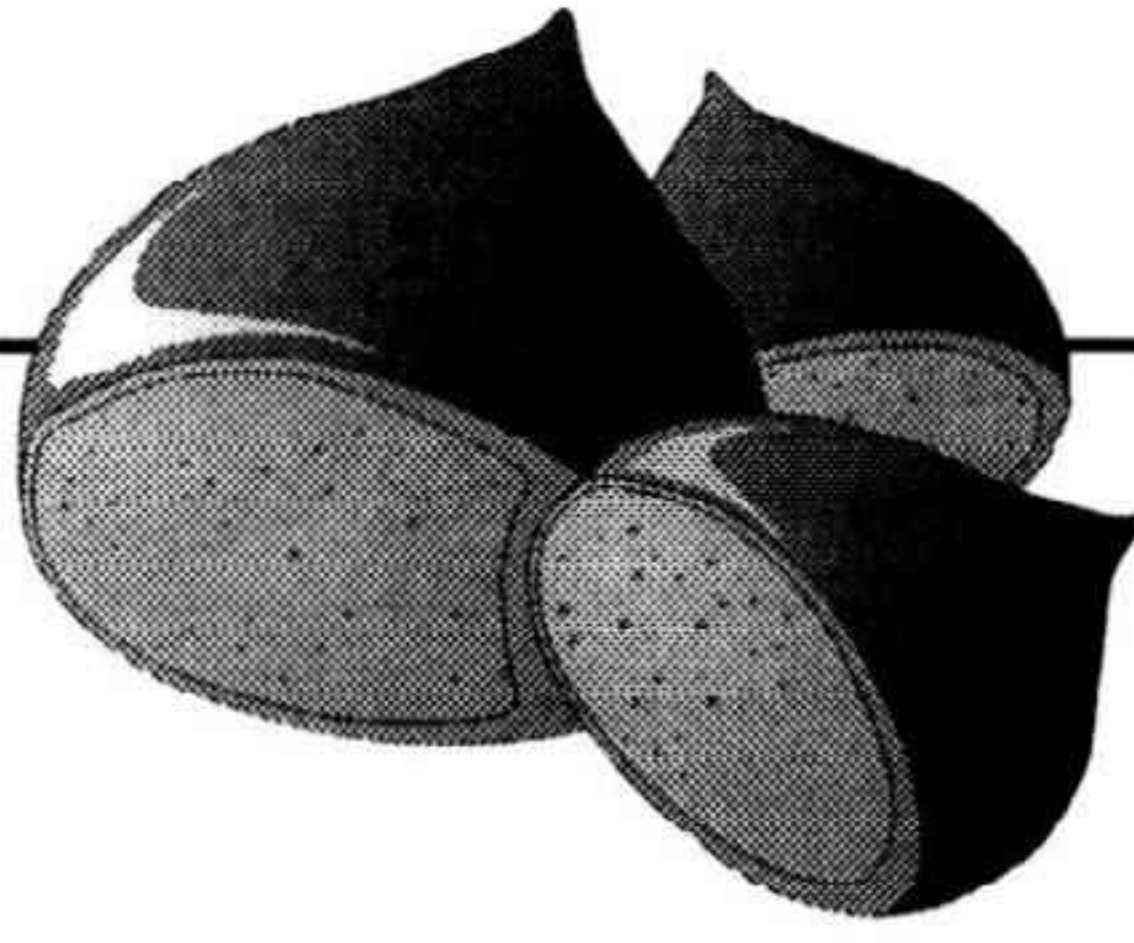
緇門에 이런 구절이 있다.

內外諸法 盡知不實 從心變起 悉是假名 不用將心湊泊 但情不附物 物豈碍人  
천 번을 읽는 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앵무새와 다를 바 없었다.  
후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보약이 될 수도 있을 것

어느 순간 들려오는 外部要素에 대한 소리는 더 없이 좋은 공부  
가 되기 시작했고 三毒이 일어날 땐 언젠가부터 觀世音菩薩을  
念하면서 마음이 편하게 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독송하는  
금강경에서 四相의 執着에서 벗어나기를 생각해보고 생활에도  
이따금씩은 나라는 相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보지만 空念佛일  
때가 아직은 많다.







다람쥐 쳃바퀴 같은 매몰된 삶에서 벗어나 法界의 主人이 되고픈 所望을 간직하고 削髮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전신을 파고드는 무기력과 나태함에 굴복 당함을 볼 때 표현할 수 있는 서글픔도 일어나지만, 이것 또한 修行에 좋은 촉진제일 때가 많다. 이제 무기력한 삶, 세속의 욕망에 휩싸이는 삶에서 물러나는 法音에 다가갈 수 있는 삶을 가지고 매일 다짐하건만 어쩔 수 없이 初發心自警文을 보면서 맘을 가라 앉혀야 하는 世間の 習氣가 아직은 많은 자신을 보면서 멀고 험하고 (아니 어찌면 가장 쉬운) 이 길에 대해 생각해 본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수행으로 돌리는 도반스님을 보면서 스스로 그 날을 기약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但情不附物하면 物豈碍人이리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도 없어지고 말도 없어지고 머리는 점점 희미해지는데 내가 과연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부끄럽다. 점점 내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외부의 환경에 순응하며 부딪치기 싫고 너무나 큰 선입견과 오해와 불신의 벽들로 좌절되고 내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무엇을 바꿔보려는 게 애초에 너무나 큰 아만이었을 것만 같다. 그대로 내 몸에 다가오는 피로감과 마음속에서 들끓어 오르는 갖은 번뇌들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만 지켜나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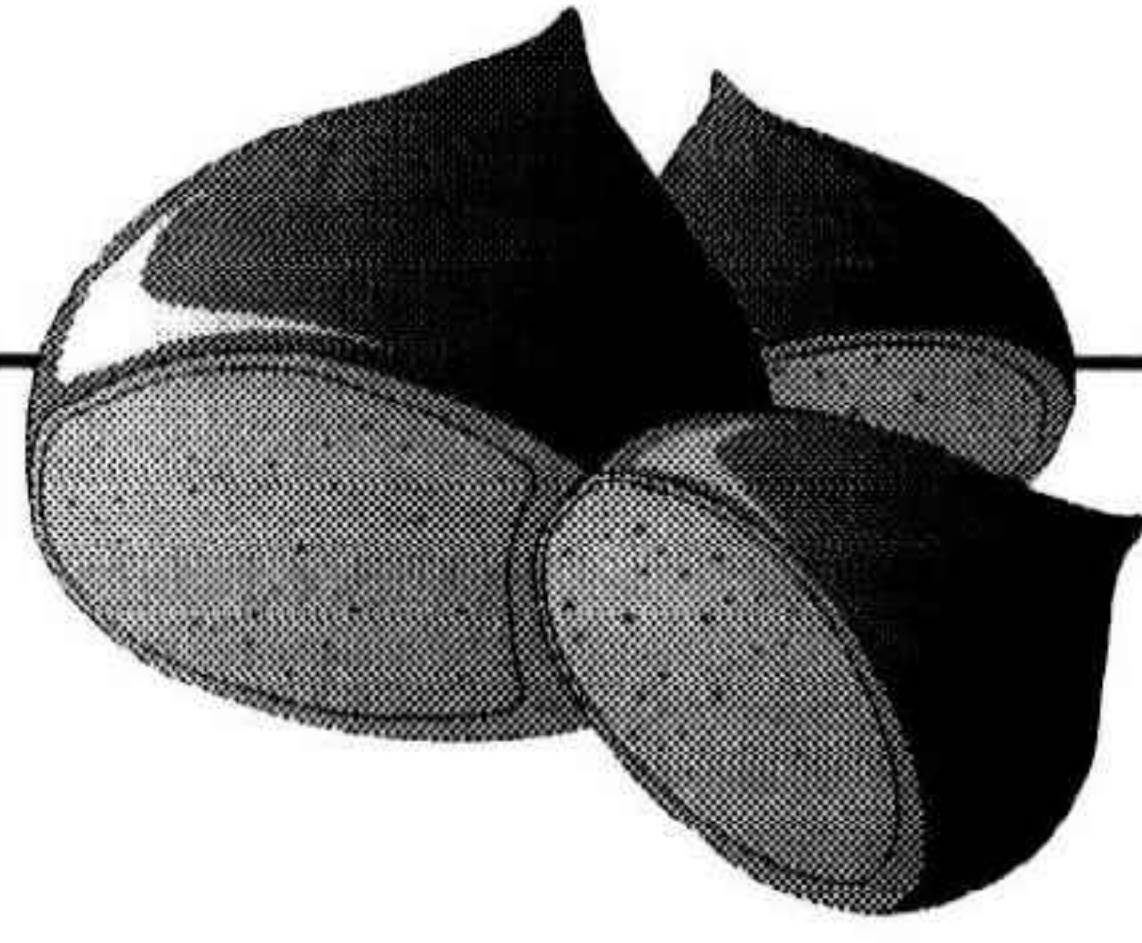
내가 누구를 위해 이런 몰골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나 또한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갖가지 갈등과 번민 타인에 대한 적대감 나를 지켜내려는 본능만으로 몸과 말과 행동으로 쉴 새 없이 구하고 그것이 또한 옳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맹신에 휩싸여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 애초에 가졌던 생각이나 좋은 취지들은 나의 이기심과 애써 상황을 모면하고픈 나약함속에 또 다른 이중의 모습으로 변해지고 바라져서 그것이 옳겠지 아마 그럴거야 불확실하고 자신감도 없는 또 다른 생각들속에

나 자신을 어느 정도 포기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든다. 왜 굳이 애써서 생각을 만들고 또 그 생각으로 나도 괴롭히고 상대방도 고민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그냥 하나의 선입견 상이 아닐까 일상생활에서 부딪혀오는 작은 생각의 차이들이 저마다 옳은 자신의 모습으로 마치 그것이 옳다면 더 옳고 덜 옳고의 작은 싸움들과 아니면 그것은 아니다란 선과 악의 모습으로 나의 공허한 마음의 번뇌를 더하고 있지는 않을까. 살아가면서 서로의 의견이 없을 수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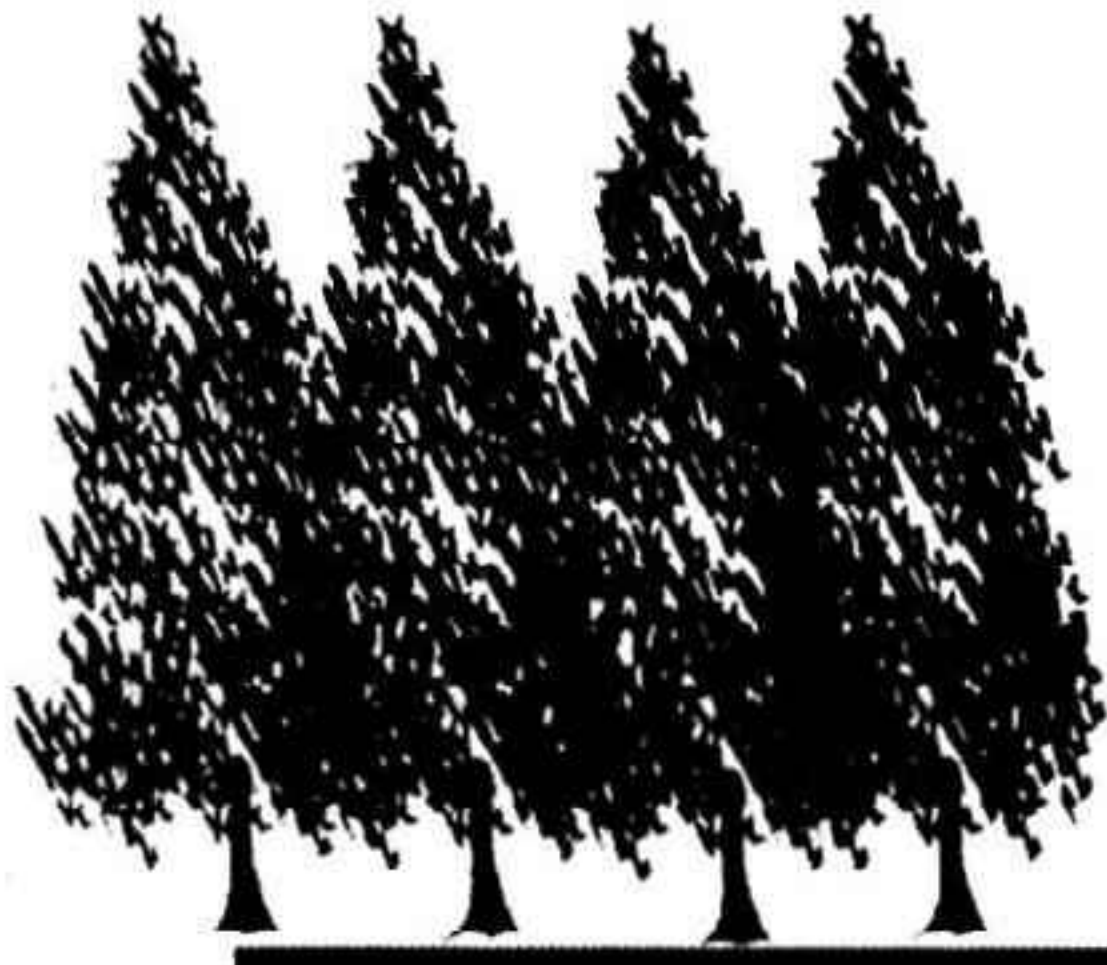


좋은 관심과 배려에는 보다 많은 대화와 다른 많은 소통 수단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상대방을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없이는 상대방에서 들이대는 불신과 억눌림 강압의 감정들을 수용하고 감싸 안아줄 수는 없을 것 같다.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야만 타인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도 한 마음 쉬어들겠지 아마 나에게 부족한 면이 아닐까 반성해본다.

대중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나 자신만의 생활 모든 면에서 단편적인 생각들과 작은 마음으로는 보단 큰 생각들과 더 좋은 마음들을 수용하고 조화롭게 만들 수 없고 모든 것에 애정의 마음으로 대할 수도 없으며 또 나의 불안전하고 모자란 점에 조금의 부끄러운 마음도 낼 수 없는 나의 모습에 자꾸자꾸 돌이켜 반성해본다.







## 송광사 강원에 살고 싶은 108가지 이유

대정(大定) / 치문-24호

사람이면 누구나 어느 때, 어느 곳에 자리 잡고 산다. 나는 지금 많고 많은 때와 장소 중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때에 송광사 강원 치문반에서 살고 있다. 이 세상에서 우연이란 것은 없고 모두 인과의 법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분명히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으리라 믿어지지만 아직 우매한 중생인 지라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때와 장소가 아니기에, 그리고 내가 살면서 누리는 재미가 대밭을 지나갈 때 느껴지는 향기처럼 혼자 가지기에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 소중한 인연 되시는 이 글을 마주하는 여러 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1. 우선 스님이 되면 동국대나 중앙 승가대 또는 전국 여러 사찰에 있는 강원이나 선원에서 4년간 공부해야 한다. 내 경우는 송광사에서 행자살이를 한터라 송광사 강원 좋기는 하지만 수십 명의 도반스님들과 24시간 함께 지내는 강원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알뜰한 계산 때문에 선뜻 선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은사스님의 결정과 좋은(?) 스님이 되려면 강원, 그것도 대중스님이 제일 많이 모여 여법하게 산다는 송광사 강원 좋겠다는 자의반 타의반 선택에 따라 이 곳에서 살게 된지도 벌써 1년이 다 돼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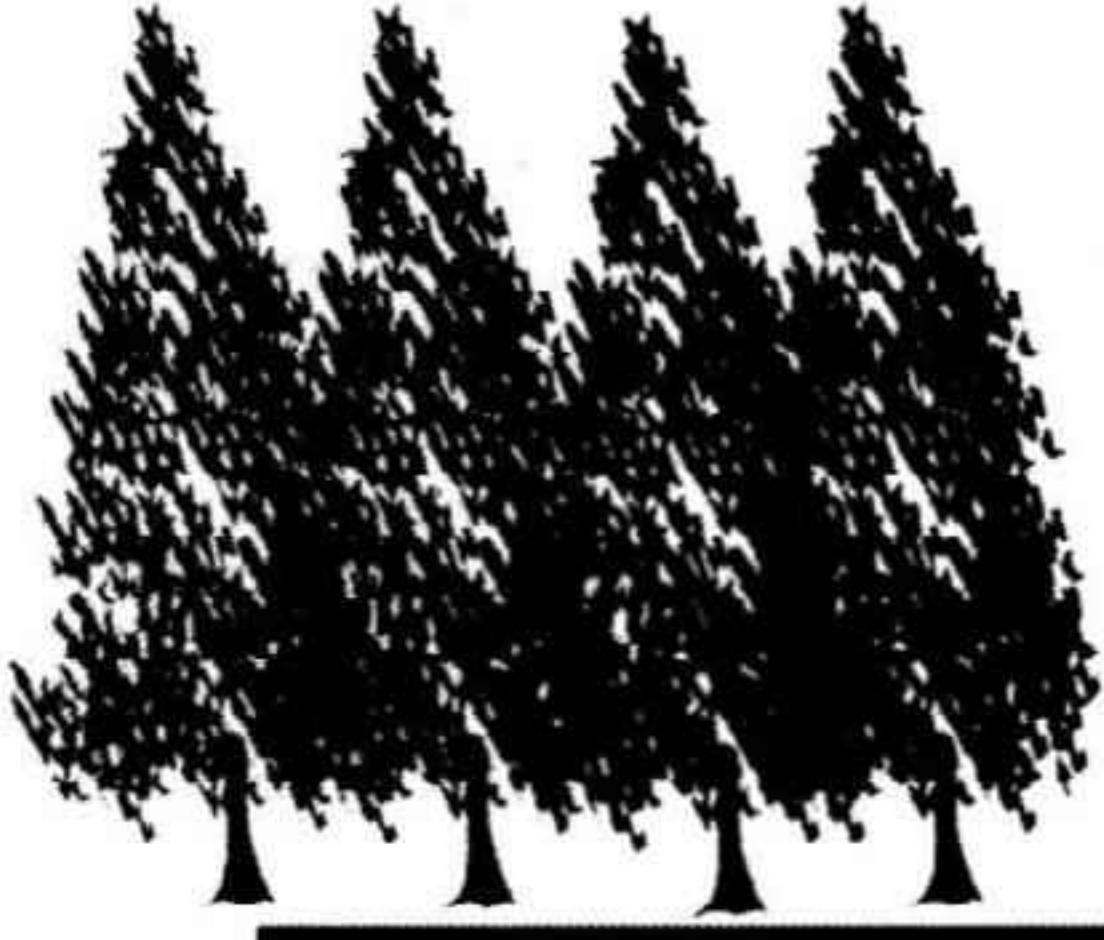
토란이나 작은 감자를 씻어 본 일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씻지 않고 여러 개를 비벼서 씻는 것이 마치 많은 대중 속에서 살면서 서로 탁마하며 사는 이치와 같아.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일 강원 학인이 많은 송광사 강원, 이것이 첫 번째 이유다.

2. 학인스님은 학문만을 공부로 삼지 않는다. 그리고 학문하기 위해 출가하지도 않았다. 학문을 통해 수행하고 예불과 울력을 통해 戒定慧 삼학을 닦아 결국에는 부처님과 같이 되고자 출가했다. 송광사 강원은 이 모든 것이 갖춰진 내게 최상의 수행처이다.

3. 내가 출가하기 한 해 전에 송광사 여름 수련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기독교인이었고 예불은커녕 반야심경도 생소한 내가 예불시간 때마다 눈시울과 가슴이 막힐 듯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다. 어떤 이는 막연히 좋았을 테고 또 어떤 이는 무덤덤 했을 텐 데 내게 만든 기억에 선명히 남은 이유를 그 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부처님께서 전생을 알고 싶으면 현생을 보라고 하셨다. 현재 내가 사는 모습은 전생의 결과(果)임을 깨우쳐 준 은은한 향기 같은 송광사 예불은 다음 생에도 다시 듣고 싶은 향음(鄉音)이다





4. 송광사 강원에는 여러분의 강사스님께서 학인스님을 지도하고 계신다. 한 분 한 모 두 보면 볼수록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내게 해주시는 강사스님들께서 계셔 주셔서 좋다.

5. 어느 강원이나 제일 어른 되시는 강주스님이 계시지만 우리 강원 강주스님 같은 분이 또 계시까 하는 생각이 들만큼 우리 강주스님은 강원과 학인스님들 공부 챙기시는 데 원력이 남다르시다. 예를 들면 예불 때 반야심경을 마치고 예불이 끝나면 모든 어른 스님들은 자리를 뜨시는데 강주스님은 항상 학인스님과 함께 자리를 하시고, 한 번은 울력으로 간경을 쉬었다가 간경 없는 휴일마저 채운 적이 있을 만큼 원력이 계신 강주스님이 계셔 주셔서 좋다.

6. 스님이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생소해 하실 분이 계시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절이 컴퓨터로 관리되고 인터넷으로 포교, 법문하는 세상이다 보니, 세상 사람이 필요한 만큼 함께 사는 스님들도 컴퓨터는 필요하다. 송광사 강원에는(올해 하안거 까지만 해도 모두 5대 뿐이었는데 올 가을에 강원후원회에서 4대, 강주스님께서 1대를 보시하셨다)정혜사 편집실에 2대, 전산실에 7대 등 모두 10대가 있다. 이 컴퓨터를 통해 우리 강원이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는 강원이 되리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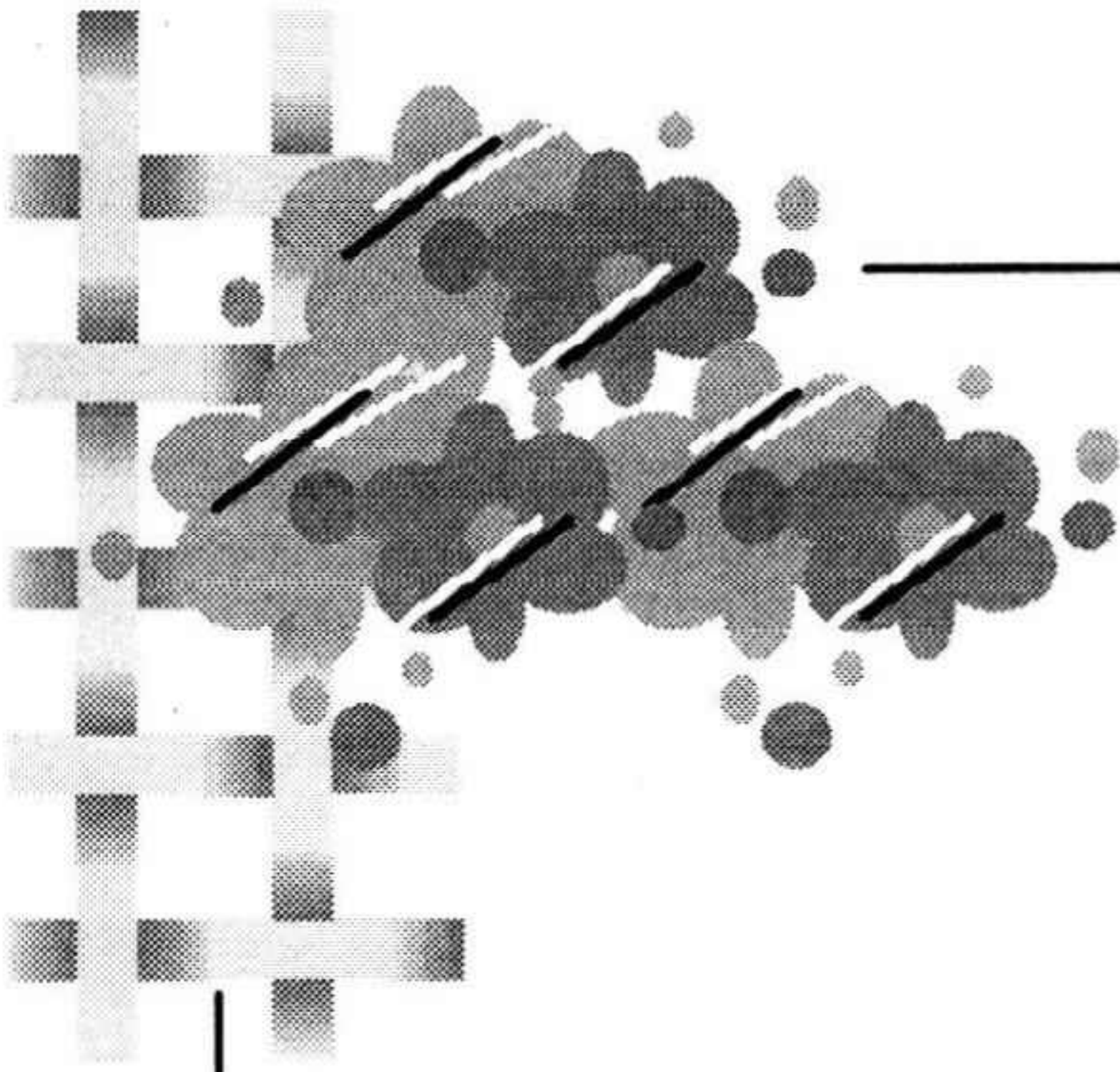
7. 이것은 사실 다 아는 비밀인데 한 여름이면 행자님들과 학인스님들은 불일폭포와 계곡에서 수영을 한다.

8. 송광사에는 감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올 해는 감이 풍년이어서 인지 아직까지 제법 남아있어 눈 맛은 홍시 맛을 겨울 내내 산새들과 함께 할 것 같아 벌써부터 입맛이 다셔진다.

9. 대나무 발이 나오는 이동통신 회사광고가 있다. 송광사에도 대밭 오솔길이 있어 홀로 걸다보면 마음의 온갖 탐진치를 녹여준다. 부처님께서 내게 송광사 떠날 때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 하시면 대밭 오솔길을 가져가고 싶다

10. 큰 절에 서점이 없는 곳이 드물겠지만 일주문 앞 불일서점은 때로는 힘든 강원 생활에서 숨 돌릴 틈을 주는 마음의 쉼터이다. 늘 마음을 여유롭게 해주는 음악과 항상 웃으며 반기시는 서점 보살님. 그리고 언제나 나와 마주칠까 기다리는 책들은 생각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 聲

용은(龍隱) / 치문-23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외치듯이 울려 퍼지는  
도량석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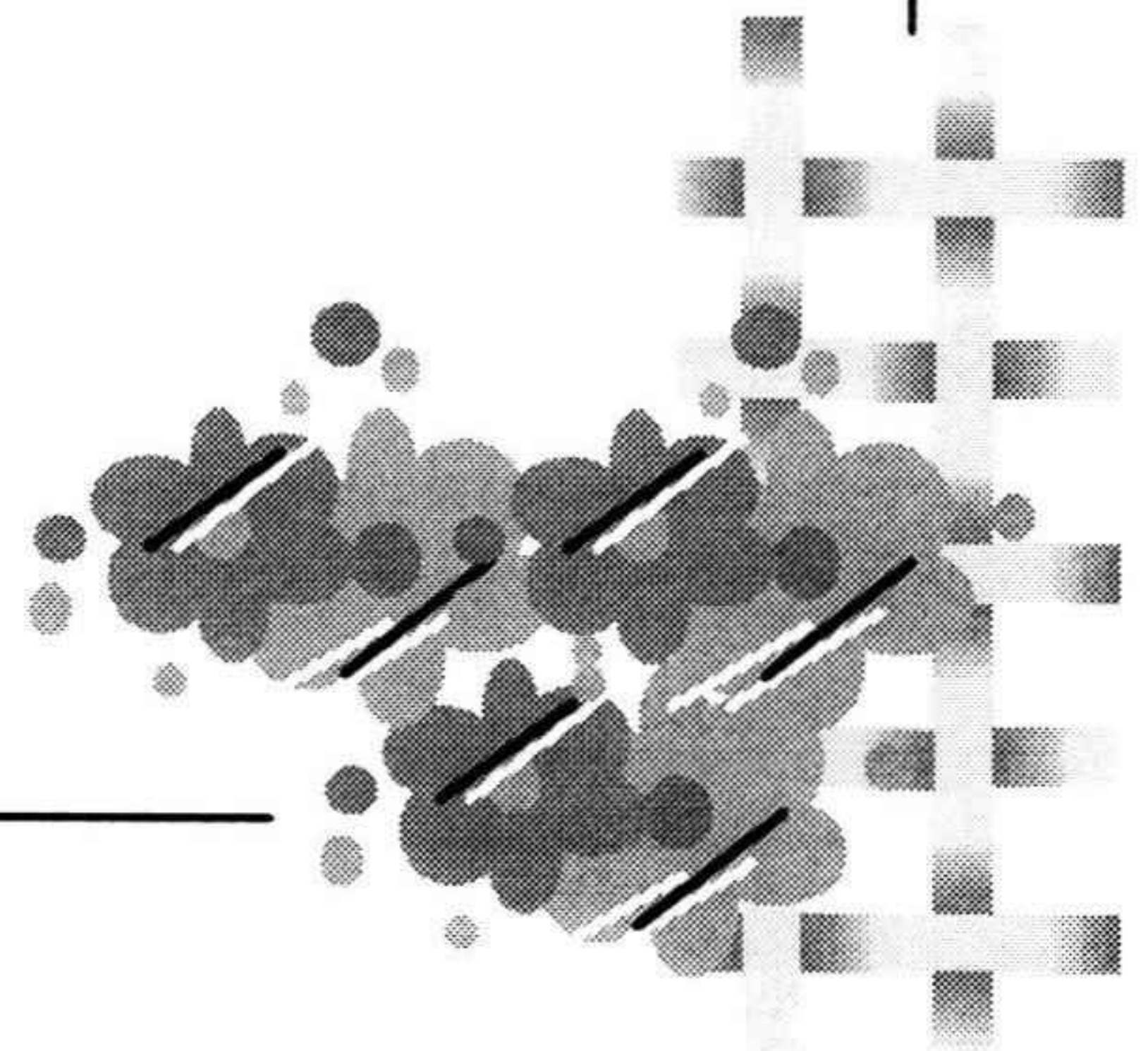
잔잔한 시냇물처럼  
맑게 흐르는 듯한  
새벽종성소리

답답한 움추림속에서  
서로 다른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한  
사물소리

신비스러운 보석처럼  
장엄하고 웅장함이 깃든  
예불소리

깊고 깊은 산속에서  
메아리치듯 울려 퍼지는  
간경소리

이 모든 소리가  
시방에 울려 퍼져서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







마음을 쉬고자 다짐하면서 옛적에 걸어온 삶을 회상하면서 출가의 길을 나섰지만 가는 길이 아득하고 하루하루가 벌써 타성에 젖었는지 몸과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생각한 삶이 아니었는데 뭔가 한걸음 걷는 걸음걸음이 수상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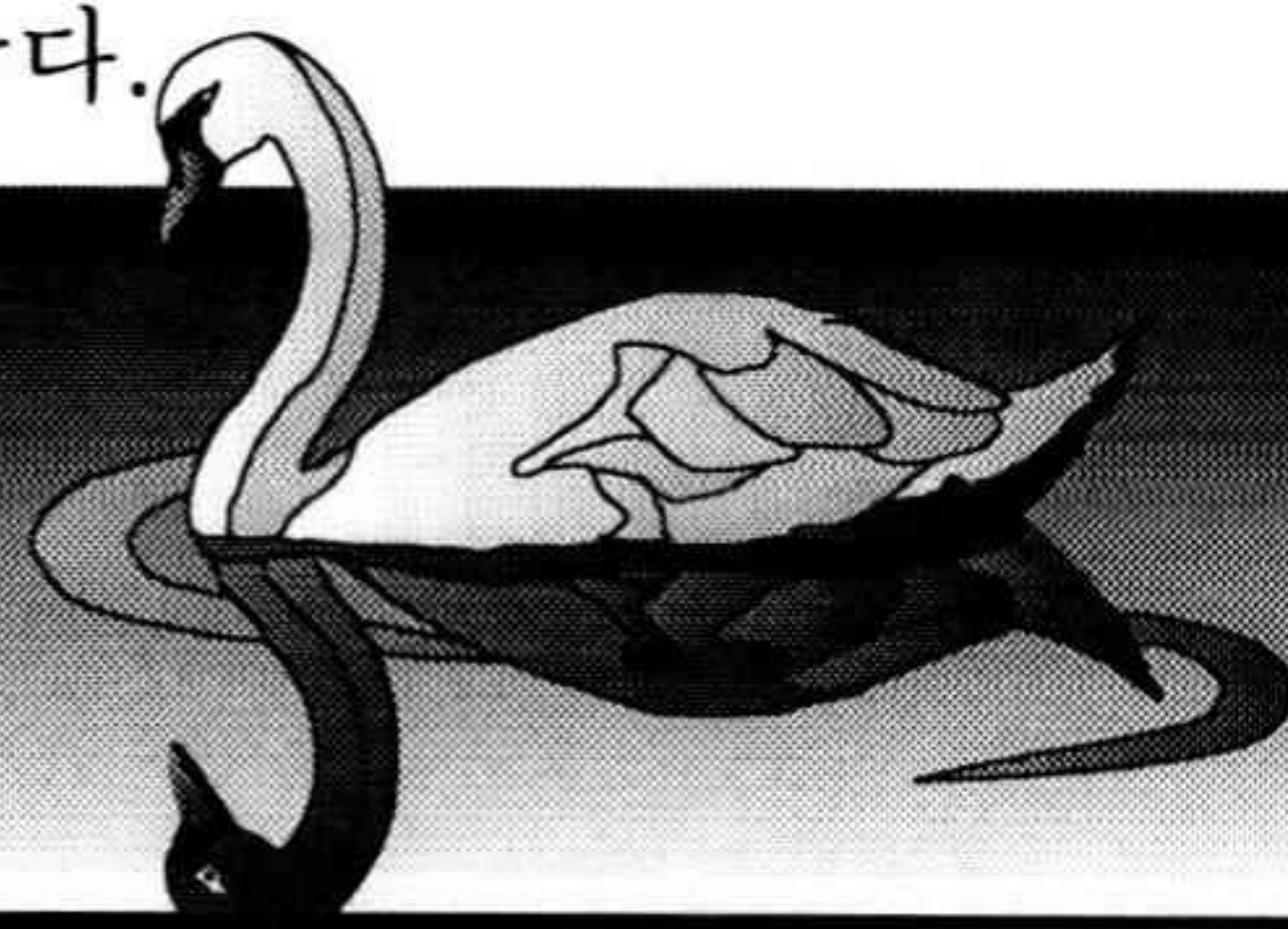
속가 부모와 이별하며 출가의 뜻을 세워서 쓰라린 이별의 정을 뒤로하고 해가 더해갈수록 공부는 고사하고 느는 것은 욕설과 못된 습관들만이 몸에 배는 것 같다. 이내 마음이 이렇게 좁단 말인가. 한탄스럽다. 감정도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졌다. 그냥 웃어넘길만한 것도 쉬이 넘어가지 않는다. 뭔가에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다. 다시 생각해서 뜻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다. 먹었던 마음 다시 먹어 나아가야겠다.

흐려지는 정신, 나약해져 가는 삶, 몸도 예전과 같지 않다. 하루하루 보람 있어야 하는 삶들이 왠지 부담된다. 입으로 짓는 허물, 뜻으로 짓는 허물 이렇게 수행한답시고 짓는 이 허물은 어찌 할꼬. 바르게 살고 정진해야 되는데 뭔가에 끄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타성에 젖어버린, 체계에 맡겨 버린 건지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체계에 맡겨 살고 있는 이러한 삶이 싫다.

고생하는 속가 부모를 떠올리면서 회상하면 마음이 쓰라려온다. 왜 출가 했는지, 수행이 뭔지, 뭘 닦는다고 하는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주는 밥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 생활이면서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다.

삶을 되돌아본다. 덕담을 나누고 자비심을 잃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벌써 마음에 못된 근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살다 조용히 지낼만하면 마음을 뒤집어 놓는 몇몇 스님들. 이러다 또는 짜증내고, 구업을 짓고 이런 삶이 수행의 길인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가보는 것이다. 조용히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청정하게 살기위해 이런 삶을 찾았는데 별별 종류의 스님들을 다 본다.

이렇게 쓸 내용이 없이 쓰다보니 종이가 아깝다. 하지만 또 쓰라고 하니 쓴다. 마음을 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쓰라니까 쓰고, 하라니까 하고, 참! 내 인생이 불쌍하다. 가엾다. 하지만 또 정진하고 좀더 나은 삶을 위해 간다. 이렇게 성의 없게 쓰는 글이 내 수행의 삶의 한 자취다. 이러한 것도 몸에 배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몸과 마음이 귀찮다.





# 무 제

용은(龍隱) / 치문-24호

집 버리고 출가한 것 이는 무슨 까닭인가?

부모 형제 친지들을 버리고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매일 취침 전에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 발심해서 출가했을 때를 생각한다.

머리 깎고 어려운 행자시절을 보내고, 사미계를 수지하고, 먹물 옷 입으며 큰 서원

세우나니 탐욕과 성냄 모두 버리고 참된 성품 연마해서 허공과 같게 하며 좋은 스승 찾아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부처님 뜻 이루어야 하건만, 부처님 법 알면서도 익혀 듣고 의지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지금의 이 모습은 참으로 많은 고통이 찾아온다.

조그마한 이익에 마음 내고 하는 말에는 허물만 있고, 항상 戒와 定은 흐트러져 있고

다른 이의 작은 허물만 분별하려고 하고, 네 자신의 과오는 스스로 지은 것인데

며칠, 몇 달이 지나도 변하는 바가 없으니 승려의 무리에 있는 내 자신이 안타까울 뿐이다.

여기에 앉아있기 까지, 은사스님의 은혜의 분량이 태산 같은데 털끝만큼도 갚지 못해

나 몰라라 밀쳐두고 어둡석게 이 큰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는가?

오늘도 하루를 보내며 내일 죽비소리를 기다린다.





# 무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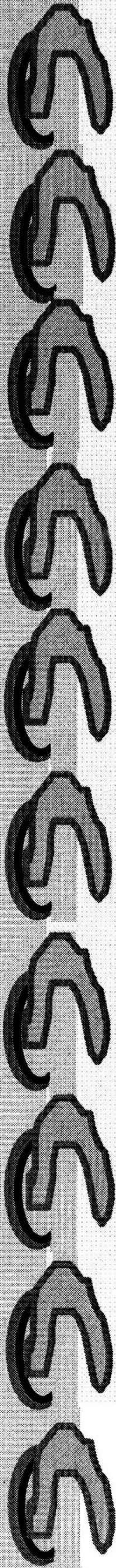
본공(本空) / 치문-24호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도 없어지고 말도 없어지고 머리는 점점 희미해지는데 내가 과연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부끄럽다. 점점 내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외부의 환경에 순응하며 부딪치기 싫고 너무나 큰 선입견과 오해와 불신의 벽들로 좌절되고 내 보잘 것 없는 능력으로 무엇을 바꿔보려는 게 애초에 너무나 큰 아만이었을 것만 같다. 그대로 내 몸에 다가오는 피로감과 마음속에서 들끓어오는 갖은 번뇌들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만 지켜나가는 것 또한 쉽지는 않겠지

내가 누구를 위해 이런 몰골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나또한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갖가지 갈등과 번민 타인에 대한 적대감 나를 지켜내려는 본능만으로 몸과 말과 행동으로 쉴 새 없이 구하고 그것이 또한 옳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맹신에 휩싸여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 애초에 가졌던 생각이나 좋은 취지들은 나의 이기심과 애써 상황을 모면하고픈 나약함 속에 또 다른 이중의 모습으로 변해지고 바라져서 그것이 옳겠지 아마 그럴 거야 불확실하고 자신감도 없는 또 다른 생각들 속에 나 자신을 어느 정도 포기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든다.

왜 굳이 애써서 생각을 만들고 또 그 생각으로 나도 괴롭히고 상대방도 고민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그냥 하나의 선입견 상이 아닐까? 일상생활에서 부딪쳐오는 작은 생각의 차이들이 저마다 옳은 자신의 모습으로 마치 그것이 옳다면 더 옳고 덜 옳고의 작은 싸움들과 아니면 그것은 아니다란 선과 악의 모습으로 나의 공허한 마음에 번뇌를 더하고 있지는 않을까? 살아가면서 서로의 의견이 없을 수 없고 좋은 관심과 배려에는 보다 많은 대화와 다른 많은 소통수단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상대방을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없이는 상대방에서 들이대는 불신과 억눌림 강압의 감정들을 수용하고 감싸 안아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야만 타인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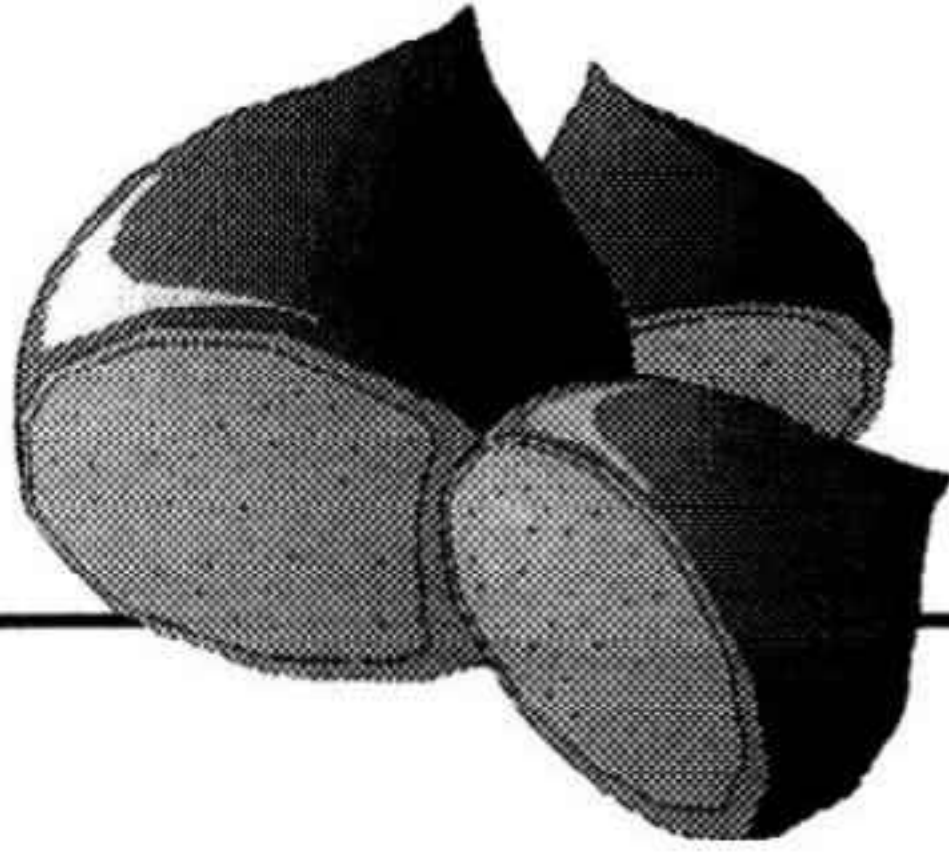




마음 쉬어들겠지 아마 나에게 부족한 면이 이것이 아닐까 반성해본다.

대중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나 자신만의 생활 모든 면에서 단편적인 생각들과 작은 마음으로는 보다 큰 생각들과 더 좋은 마음들을 수용하고 조화롭게 만들 수 없고 모든 것에 애정의 마음으로 대할 수도 없으며 또 나의불완전하고모자란 점에 조금의 부끄러운 마음도 낼 수 없는 나의 모습에 자꾸 자꾸 돌이켜 반성해 본다.





## 무 제

법운(法雲) / 치문- 23호

출가라는 일생일대의 갈림길에서 고뇌하고 마음 아파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궤도에서 서서히 자리 매김을 해 간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 나의 모습에서 말과 행동이 하나하나 바뀌어서 나오고 이제는 생각하는 사고까지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감지한다. 겉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하는 것까지 달라지게 하는 것은 환경에 참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스님으로써 자리에 설 수 있게 인연 되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나의 경우 우리들이 평소에 잘 알고 있는 5戒에 대해서 우리말로 쉽게 풀이한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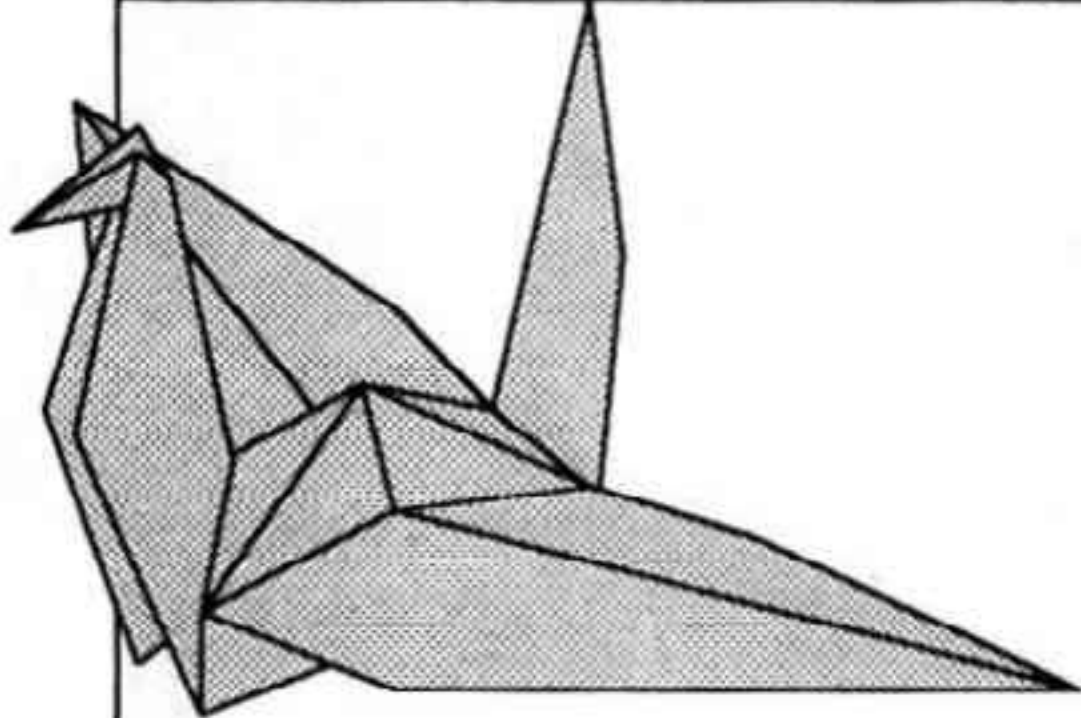
1. 생명 존중을 배우는 것 (살생)
2. 분배의 정의를 아는 것 (도적질)
3. 참 사랑을 배우는 것 (사음)
4. 진실 된 행을 하는 것 (망어)
5. 지혜의 문에 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다섯 가지 계로 조그마한 암자에 있을 때 공양시간에 항상 했던 것을 간략히 적었습니다. 우리가 출가인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계를 지킨다 안지킨다 하기 보다는 떳떳하고 남부끄럽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이 길에 들어선 소신과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스님으로써 살아갈 토양과 자질을 키워 나갔으면 하고 바람이다.

송광사 전통강원 은사스님이 추천을 하셔서 왔지만 지금 몇 달을 지나고 나서 왜 이곳으로 고집하고 보내셨는지 알 것 같다. 청정한 대중과 함께 살면서 세속적인 습을 철저히 닦고 한 인생의 삶이 윤희하게 클 수 있는 길임을 느낀다. 내가 평생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모든 이에게 사랑하는 마음, 나의 행을 함에 돌아보는 마음, 그리고 지혜에 이르러 세상에 빛이 되고 길이 되었으면 하는 목표를 잡고 앞으로 열심히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서 살아가는 학인이 되겠습니다.







# 무제

무영(無影) / 치문-23호

2000년 3월1일 부푼 꿈을 안고 출가하였다. 眞月이라는 불명과 같이 밤 하늘을 밝게 비추는 달과 같이 세상에 빛이 되리라. 굳게 다짐하며 출가하였다. 목적지는 송광사 천자암. 하지만 출가 할 인연이 아니었는지 그 곳에 큰스님이 계시지 않았다. 결국 내려와서 해인사 원당암으로 갔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주일 간 밤잠을 설치며 보낸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스님이 되어 수행자로서 의 길을 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부족 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한 3000배 후에 결국 내려오게 되었는데. 내려오면서 다짐하기를 다시 한번 도전 하리라는 마음 을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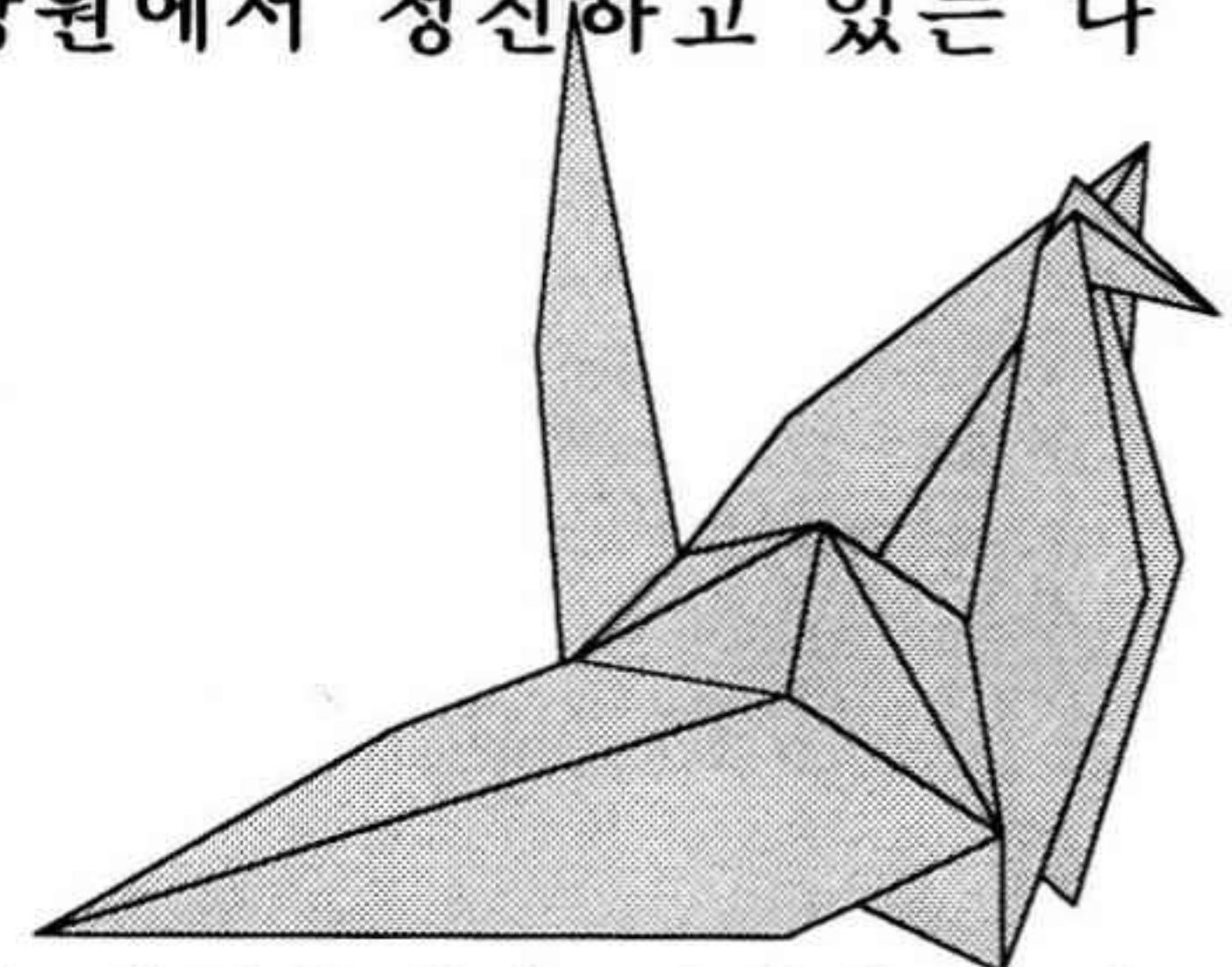
누구든지 적어도 두 번 정도는 자신의 인생 ,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다가 오 리라고 생각했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생각에 틈틈이 절에 나갔다. 그러던 중 다니던 절에서 어린이 하계 수련회 선생님이로 참여하 게 된 나는 선생님으로서 잘 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절에서 2달간을 지내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 때 아버지가 운영 하 시던 공장에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였다.

어린이 하계 수련회를 무사히 마친 나는 절에서 조금 더 지내기로 했다. 그때 까지 나의 생 각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출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었다. 군대를 어차피 갔다 와야만 하는 나로선 스님이 되고 난 뒤에 군대가는 것보다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출가하는 것이 더 나 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절에서 기도를 하면서 지내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 다. 바로 지금이지 그 때 가 따로 있는가! 라는 말이였다. 군대 제대 후에 출가를 하고 싶었지 만 혹 출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서 나는 부리나케 정리를 하고 스님에게만 말씀드리고 송광사로 입산했다.

6개월간의 행자생활을 마치고 스님이 되어 송광사 강원에서 정진하고 있는 나는 이제는 스님으로서 스님답게 살아가려한다.

個個有眞月  
淸淨光圓滿  
恒照三千界  
尋見猶無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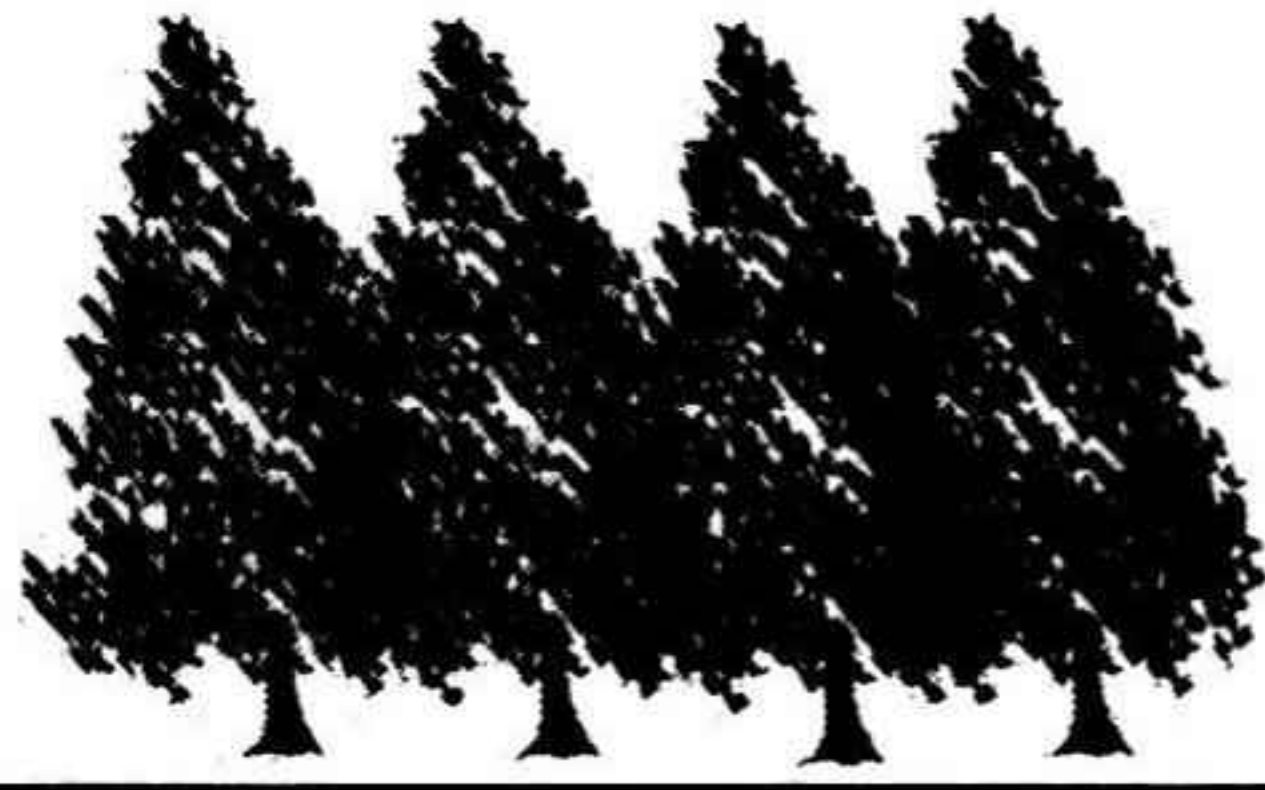
누구나가 각각 하나의 참 달이 있어  
청정한 그 빛이 원만히 밝아  
항상 삼천대천세계 두루 비추되  
그 자취를 찾아보면 그림자 없네.



은사스님이 써주신 글처 럼 참 달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을 거짓됨과 꾸밈없이 두루 비출 수 있는 나, 무영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20년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과 나에게 출가라는 멋진 길을 알려 주신 부처님, 중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은사스님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곳곳하게 견뎌 준 내 자신에게 감사드린다. 달은 세상을 마냥 비출 뿐!





## 글에 관하여



연성(鍊性) / 치문-24호

먹물 옷을 입고 그것도 머리 깎은 지 몇 해 되지 않은 초남으로서 글을 적는다는 건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다.

예전에는 행자생활을 3년이나 하고 먹물 옷을 입었다는데 요즘은 6개월이면 어느새 모양은 어쨌든 스님이다. 아직은 속가의 행동, 습관, 사고방식이 다분한 우리 초남으로서 글은 적으라시면 출가 전 세속에 있을 때의 기질, 특성, 기억을 동원해야 한다. 물론 글 내용이야 속가의 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다지만 그래도 글을 쓰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속습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말까지도 사족이 아니었나 싶다. 다만 여여하게 살면 되는 것을. 우리는 글쟁이가 되어서도 말쟁이가 되어서도 공부쟁이가 되어서도 일쟁이가 되어서도 안된다. 자칫 잘못하면 출가 수행자라는 속인의 신선한 시각에 호응하여 출가자의 본분을 잃을 때가 많다.

글을 쓰더라도 백번 생각하고 행하여, 행했던 것을 한 가지만 적고, 다시 돌이켜 그 글이 타인에게 읽혀짐을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말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에 수행의 자세를 갖추어야 그것이 글이 되고, 말이 되고, 공부가 되고, 일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그친다면 그저 “쟁이”가 되어서는 시주물, 시주 밥을 하루하루 먹고 토해내도 시원찮다.

2년 전 정혜사에 글을 실은 적이 있다. 별 생각 없이 적긴 했지만 운 좋게 내 글이 실리고 또 2등까지 해 상금도 받았다. 그 내용이 좀 독특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로는 그 내용 혹은 제목을 가지고 꼬리표처럼 나를 따라 다닌다. 그야말로 걸림 없이 적은 것이 걸림이 되어 버렸다. 물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아니다. 하지만 “중은 자못 이 회색 승복처럼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스스로를 살피며 살라.”는 옛 어른 스님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건 왜일까?

며칠 전 중강(강사)스님과 수업시간에 다룬 적이 있다. 의견 마찰이 생겨 도중에 나는 말했다. “치문을 배우면서 한문을 몰라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배우고 돌아서서 생활에 반조하기를 노력할 뿐입니다.”

이야기가 편협한 바가 없진 않으나 나부터라도 글을 씬에 조심해야 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겠다.



# HAPPY DAY

제목 : 마지막에 결정하겠음

해명(海明) / 치문-23호

출가한지 일년이 채 안되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직 많은 사회 습관이 남아 있다. 가끔은 술, 담배, 고기, 여자친구(?), 노래, 당구, 볼링, 도박, 운동경기관람, 락 콘서트관람, ……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가끔은 해보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 중에서도 크게 나를 유혹하는 것은 춤과 노래이다. 나는 춤과 노래를 아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썩 잘한다. 출가 전에 음주 가무를 즐기는 풍류객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 남아의 멋을 한껏 뽐냈었다(?).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몇 자 음주가무와 주색잡기의 차이점에 대해 말하겠다. 음주가무는 춤과 노래를 통해 무념의 경지에 드는 것으로 흥을 위해 약간의 술을 가미하는 것이며, 주색잡기는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하여 술과 여색, 잡스러운 놀이 등을 탐하는 것으로 전자를 즐기는 자를 풍류객 이라하며 후자를 탐하는 자는 탕아 또는 난봉꾼이라 한다.

나는 원래 성격상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므로 댄스가수들이 추는 테크노, 힙합, 브레이크 댄스 같은 격하면서 판에 박힌 춤은 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필자가 추는 춤은 무엇일까? 세계적으로 공인된 백과사전에 보면 필자가 추는 춤의 공식명은 '막춤'이다. 이 춤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기존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음악과 하나가 되어 자신의 내면세계를 춤을 통해 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고 홍OO 가수의 막무가내 춤과는 격이 다름을 알기 바란다.

나의 춤 실력은 세계 각국의 댄스클럽-우리나라에서는 나이트클럽, 락 카페 등으로 불리워짐-에서 비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실력이다. 필자는 출가 전 직업상 다른 나라에 가 볼 기회가 많았다. 지금 대략 계산해도 30여 개국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대로 그 나라 댄스클럽에 가서 하나하나 평정해 나갔다. 그런 나에게 각국의 못보살님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정말 꿈같은 시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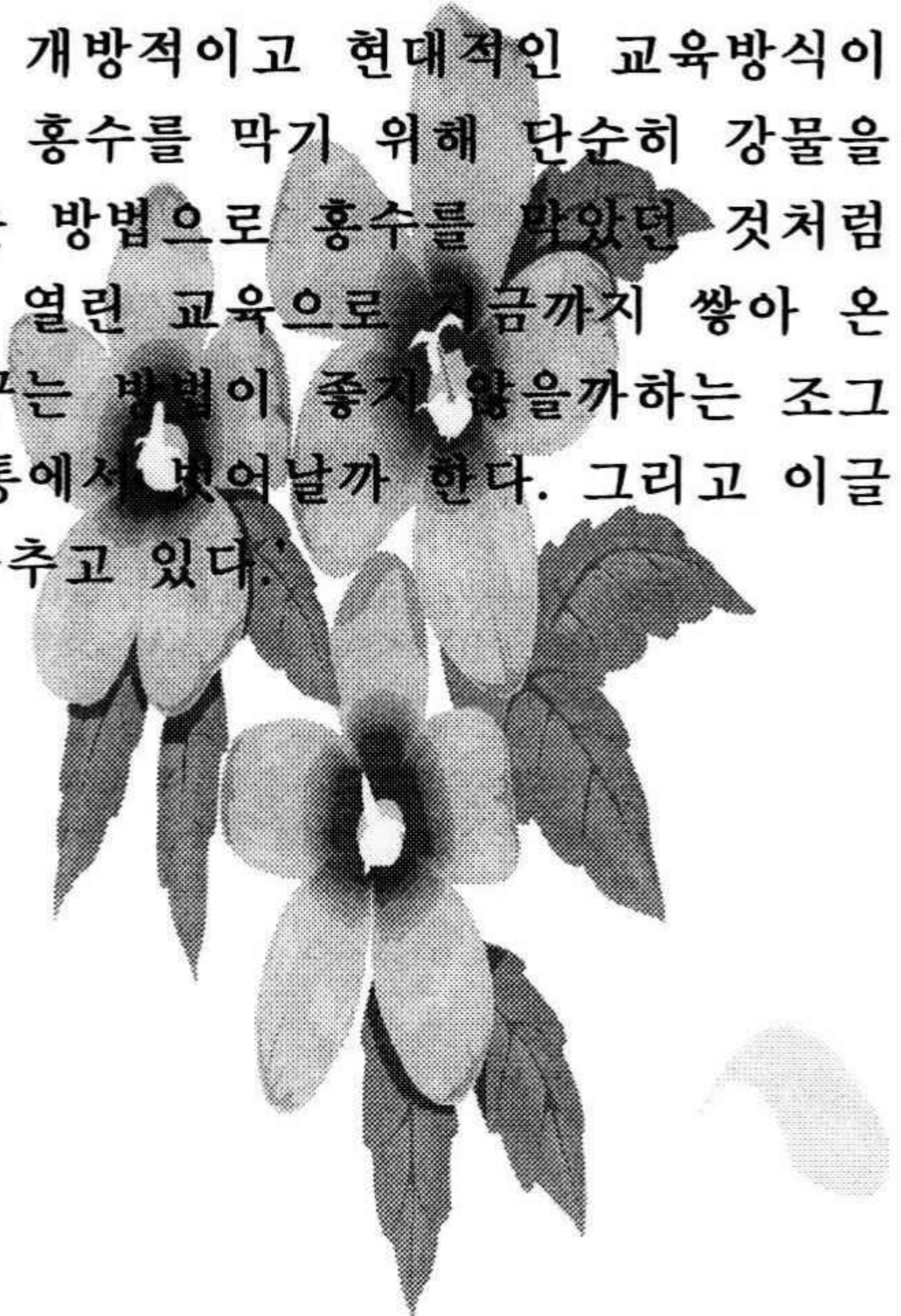
이정도 되면 독자 분들은 필자의 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궁금해 할 것이다. 하지만 뮤직 비디오를 촬영하지 못한 관계로 불행히도 보여줄 수는 없고, 내 춤의 근원을 밝히는 것으로 독자들의 아쉬움을 달래줘야 함을 필자는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필자가 추는 춤의 근원은 아프리카에서 비롯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아프리카라 하면 독자들은 타잔에서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신나게 두들리며 고릴라처럼 소리치는 것을 상상하겠지만 그들의 춤을 보고 있으면 그 밑바닥에 깔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음악이 하나가 되는 '자연스러운 신비함'이 느껴진다. 자칭 문명국가라고 주장하는 여러 나라의 춤에는 이런 것이 없을뿐더러 어색함까지 느껴진다. 근래에 인기 있는 테크노, 힙합, 마카레나, 브레이크, 스윙, 트위스트, 웨이브, 디스코 등 그 외에도 근세와 현대를 풍미했던 서구의 그야말로 막무가내 춤이다. 이런 서구의 춤에 비해 아프리카 춤은 화려한 기교나 율동은 없으나 삼매에 빠진 듯한 신들린 그들의 춤을 보고 있노라면 보고 있는 사람도 함께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몇 년 전, 필자는 모잠비크에서 그들과 멋진 밤을 보낼 수 있었으며 그 경험은 내 춤세계를 크게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나의 춤실력으로 인하여 부지불식간에 낯선 보살님에게 내 입술을 빼앗기는 불행한 사태(?)까지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 끔찍하다(?). 춤 실력뿐만 아니라 노래 실력은 어떠한가? 춤과 함께 멋진 앙상블을 이루어 못 여성(보살님)들에게는 환호의 대상이요 못 처사들에게는 질시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풍류를 아끼고 즐기며 주유천하 하던 나는 지금 학인으로서 불가무창기 불왕관청-노래하고 춤추지 말며 가서 구경도 하지 말라-계를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니 세세생생 쌓아온 춤에 대한 습으로 인하여 필자가 얼마나 많은 번뇌와 망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지 독자들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가끔씩 음악소리가 들려 올 때면 음악에 맞추어 표시 만나게 살짝살짝 움직여 보지만 아! 이 타는 갈증! 이런 내가 송광사 강원에 있으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송광사는 곧 죽어도 전통과 계율이다. 그래서인지 그 흔한 TV도 없고 선풍기도 몇 대 안되고 컴퓨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한번도 구경한 적이 없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어떠한가? 시내를 나가려면 버스도 한 시간 이상 걸리니 그야말로 사회와 격리된 '천옥' 오죽하면 치문반에서는 이곳을 '사미 감호소'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겠는가! 그래서 필자는 가끔 생각한다. 여건만 되면 송광사 한 구석에 방음장치가 된 음악실과 댄스를 그리고 비디오 감상실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내가 언뜻 듣기로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는 스님들이나 다른 종교계의 성직자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니 나의 이런 바램이 황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건강해서 상구보리 하화중생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필자의 주장에 상당한 숫자의 도반들이 은근히 지지할 거라고 내 멋대로 추측한다.

지금까지 말도 안되는 글을 썼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강원교육이 너무 사회와 격리되지 않게 조금은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교육방식이 도입되면 어떨까하는 것이다. 옛날의 우임금이 홍수를 막기 위해 단순히 강물을 막는 방법을 쓰는 대신 물길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으로 홍수를 막았던 것처럼 우리의 강원교육도 단순히 억누르는 것보다는 열린 교육으로 지금까지 쌓아 온 습관을 순화하여 서서히 스스로의 힘으로 바꾸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하는 조그만 목소리의 의견을 제시하며 이제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까 한다. 그리고 이글의 제목은 '잡설(雜說)-그래도 내 발가락은 춤추고 있다.'





## 절 집 인 연

혜관(慧觀) / 사미-24호

사미계를 수계한지도 2년을 가득 채우고 훌쩍 넘겨 버렸다. 출가 전에도 출가 후에도 얼마 동안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송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지도 있으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였는데 이렇게 앉아 처음으로 삭발 하던 때를 되돌아보고 있다.

4년 전 가을 대전에서 경주행 고속에 무작정 올랐다. 다니던 직장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생활에 어느 정도 짜증을 내는 시점이었던 것 같다. 학창시절 어느 월간지에서 본 골굴사라고 하는 절이 문득 생각이 나서 달랑 차비만 챙겨가지고 길을 떠난 것이다. 늦은 시간에 경주에 도착 하였는 데다 주말이라서 여관비가 평일보다 비싼 것으로 기억난다. 결국 여인숙에서 하루를 보내고 물어 물어 김포행 좌석을 타고 골굴사에 도착을 하였다. 마침 지금 은사스님이 휴일이라 계셨고 절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는 나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사실 이때까지도 출가를 해야지 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다만 운동을 하면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마음에 중심이 잡히지를 않았다. 단풍이 곱게 물든 늦가을 대전에서는 이미 버스가 끊겼는데 택시를 타고 금강 휴게소까지 가서 서울 쪽에서 내려오는 고속버스를 타고 다시 경주로 내려갔다. 다음날 아침 절에 들어갔으나 스님은 계시지 아니하여 경내만 한바퀴 돌고 김포 앞바다 푸른 물결만 무심히 바라보다 대전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갈등하다 그해 말일자로 직장을 그만두고 경주로 내려갔다. 사실 삭발이 전에도 학창시절에 선사상이나 단전호흡 등에 관심이 있으면서 깊이 있게 파고들지를 못하였으며 선도 사상과 절집안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았기에 절 집안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은사스님 밑에서 1년여 정도 운동을 배우면서 느낀 것은 행·주·좌·와·어·묵·동·정 이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이 모두 깨달음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았다.

나는 이 가을에 또 한번의 출가를 하였다. 처음 출가가 삭발염의 하고 구도자의 길을 가기 위한 출가라고 한다면 두 번째의 출가는 이곳 송광사에서 구도의 길을 걸으면서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내 자신을 찾아 가는 것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나에게 있어서 출가는 되풀이될 것이다. 비록 내 마음 속의 내 스스로의 출가이기는 하지만 모난 구석이 많은 나를 그래도 절 집안에서 부처님의 공양을 내려 먹고 살 수 있게 출가를 시켜준 은사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생에는 윤회의 고를 끊고 절 집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발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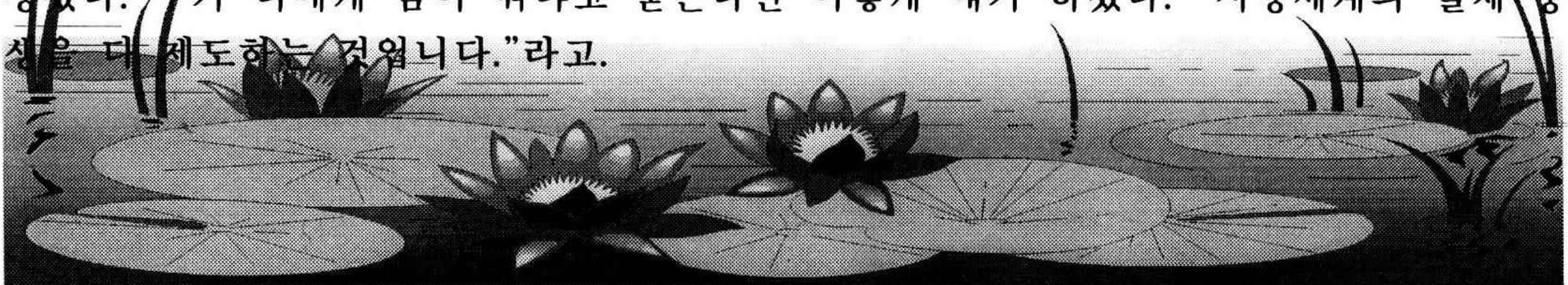
## 나의 꿈

보원(普願) / 사미-24호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처럼 어려서부터 꿈이 바뀌지 않은 사람도 드물 것이다. 나는 나의 꿈에 대해서 쓰려고 한다.

어려서부터 성당에 다녔던 터라 불교가 뭔지 부처님이 누군지도 몰랐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다. 동네에 좋은 포교당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절을 다니라는 아버지의 엄한 명령이 떨어졌다. 아버지는 학생 때부터 절에 다니는 불교신자였었다. 절이란 곳은 가보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은 내가 어머니 손을 잡고 동생과 함께 포교원에 가게 되었다. 처음 법당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과 내 눈에 비친 모습은 지금도 기억이 난다. 황금색에 가까운 빛이 보이고 편안하고 아주 기분이 좋은 느낌이었다. 황금색의 빛은 부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편안한 느낌은 처음 맡아보는 향냄새 때문이었을 것이다. 난 토요일마다 어린이 법회를 나가게 되었다. 성당과는 다르게 바닥에 앉아서 했고 어린이들끼리 법회의식을 했다. 모든 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때 법문 시간이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중앙승가대학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비구니 스님이 와서 법문을 해주셨다. 토요일마다 가는 그 법회가 얼마나 재미있고 법문시간에 듣는 부처님 이야기가 얼마나 좋던지 학교에 가서도 아마 절 생각뿐이었을 것이다. 하루는 법문 이 끝나고 법사 스님께서 40명가량 되는 어린 법우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 “스님이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중에 아주 용기 있는 사내아이가 있었으니 40명가량 되는 어린 법우 가운데 혼자 손을 번쩍 든 것이다. 그게 나였다. ^^ 그때 나는 그 비구니 스님을 아주 좋아 했었나보다. 아마 그 스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수십 번도 더 읽은 만화로된 석가모니의 일생, 거기서 본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중, 고등학생이 되고서 느낀 세상은 내가 배운 불교와는 맞지 않았다. 외롭고, 힘들었던 학생시절을 아주 재미있게 보낸 건 학생회란 게 있어서 일 것이다. 불교를 더 배우고 아주 멋있는 비구 스님의 설법도 듣고 가끔 보이는 포교원 주지 스님의 위엄 있고 거룩한 모습, 모든 것이 좋았다. 고등학생 때는 어린이 법회 선생님도 해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무영스님을 만난 것이다. 물론 나보다 늦게 불교를 만났지만, 뭐 그건 현세의 일이고 인연이 깊었던지 먼저 출가를 하셨다. 매일 출가에 대한 얘기와 세상에 관한 얘기 못하는 술을 한잔 따라놓고 밤새 그 한잔 붙잡고 얘기하던 게 고3의 힘들었던 때를 견디게 해 준 일 인지도 모른다.

결국 난 어려서의 꿈대로, 고3 졸업식 날 순천행 기차를 타고 송광사에 와서 머리를 깎는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리게 보신다. 9년이란 시간동안 출가를 생각한 사람이 그리 흔할까? 뭐 그래도 나는 아직 어리다. 지금 난 꿈이 바뀌었다. 아니 새로운 꿈이 생겼다. 누가 나에게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 하겠다. “시방세계의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는 것입니다.”라고.





## 참회 제일 존자

무안(無安)사집-23호

사집반 무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云云... 사미의제 미착용으로 입승스님으로부터 참회지시 云云... 이에 일주일 지장전에서 참회하겠습니다.

나를 두고 참회 제일이라고 한다.

실지로 내가 그런가? 자문해본다.

언제 어느 때 또 사고를 칠까봐

그래서 내가 별명 아닌 애칭이 참회 제일인가 보다

전적으로 이 말은 나의 은사스님이 여러 대중스님께 말씀 하신 것이다

매일 저녁마다 지장전에서 마루에 헤딩하고 있는 놈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무안'이올시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매표소에 있는 박풍자 보살님도 알고 계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참회를 많이했다.

결국 생각해봐도 내가 조금 다른 스님보다 조금 더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의 행동이나 언행이 약간 어색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전혀 개의치는 않고 조금씩 잘못을 스스로가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회란 스스로 잘못된 일에 대하여 용서를 비는 일이다.

아랫반이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참회를 하면 나의 잘못이전에 참회를 내린 지시를 원망했었는데 며칠 전 참회를 하고 나서 그런 것이 말끔히 해소가 되었다. 내가 생각해도 정말 신기한 일이다.

참회란 힘들다.

절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참회가 이어지면 도반, 아랫반, 윗반 스님내에게 눈총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나와 남에 대한 스스로가 화를 내기로 하지만 그것은 나와 남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도 나는 지장전에서 내 스스로 참회를 하고 있다. 저기 종고루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은사 스님이 아닐까 조바심을 내면서 조용히 기도를 한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 탈 없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매우 친근한 말과 함께.



## 回光返照

도연(道然) / 사집-23호

흔히 수행을 하고 있지만 안과 밖의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일상의 기본적인 먹는 시주물에 있어 너무 풍족할 때 우리의 모습들이 맞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흔히 대중처소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중들과 살아가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개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몇이 있는 것 같다. 먹는 음식이 먹고 난 후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생각이 날 때가 있다.

우리가 수행생활을 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 신심을 촉발시키고 또 불자들의 신심을 나게 하는 모습이 정말 수행자 모습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불자님들은 산중의 사찰을 찾아와서 스님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예불, 사물 여러 가지 등등의 것을 몸으로 느껴 일상으로 돌아가 짧은 시간의 느낌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안식을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힘이 들어도 열심히 살아가고 신도들의 시주 물을 받아 열심히 수행해야한다. 한편으로는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포교도 하고 사찰 안의 안내와 자기 자신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신도들이 한 번 왔다가는 것만 아니라 영원 자기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



## 친 구

혜천(慧泉) / 사집-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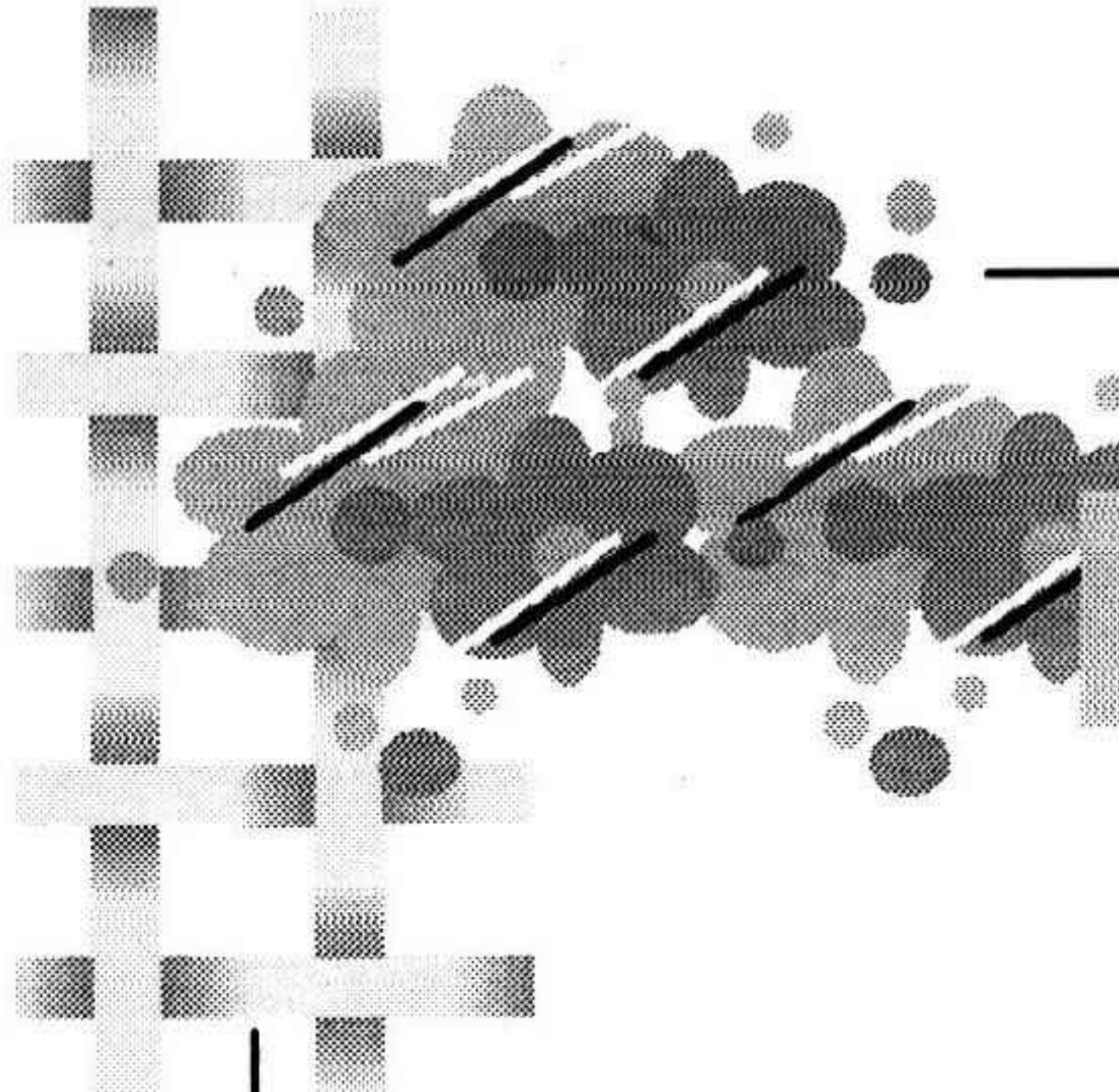
언제부터인가 너를 잊은 채 바쁘게 만 살아왔던 것 같은데 잠시나마 옛 추억 옛 시절로 나를 다시금 돌려놓았던 것은 영화 '친구'였다. 영화의 내용처럼 나와는 너무도 비슷한 점이 많았다. 어린시절들 바닷가에서 우끼타고 수영하면서 주고받는 이야기 “야, 조오련이 하고 거북이하고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기겠노?”하는 질문이다. 그러면서 학창시절 기억들이 너무도 생생하여 아주 재미있게 보았다. 그래서 내게 있는 친구에 대해서 몇 글자 적어보려 한다.

애는 항상 멀리가지도 않고 붙어 다니면서 서로의 필요성이나 서로의 소중함을 늘 잊고 살다가 다급한 때만 찾는 애였다.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먼저 알아보고 먼저 달려들었다. 신기하게도 본능일까. 아닐까 아니면 모르겠다. 하지만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고 많지만 이 애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뿐인 나의 단짝이었으며 벗이며 친구이며 동반자였다. 그래서 난 언제나 애가 좋았다. 왜냐구(난 애의 시다바리니까) 기쁠 때 옆에서 같이 즐거워하고 콧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또 힘들 때 함께 하면서 위로해주기도 하고 슬플 때는 질질 짜고 훌쩍거리기도 하였지. 난 이러한 가식 없는 당당하고 번듯한 모습이 너무 멋있고 기가 찬단 말이야.(거짓말 좀 보태서)

친구야 만약 니가 세 잎 클로버라고 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 왜냐면 네가 세 잎 클로버라면 사람들이 허리를 잘라 손을 번쩍 들며 이렇게 소리 지르겠지. 야 네 잎 클로버다. 야, 신난다. 오늘을 행운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 놈도 만져보았다가 저 놈도 만져 보았다가 뒤집었다가 굴렀다가 입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콧구멍으로 붙었다가 싫어지면 내동댕이치겠지. 아 이건 너무 마음이 아프다.(그지) 하지만 너에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말이지 너의 부족한 부분이 되어서 항상 동고동락하면서 그 어떤 이들이 너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아도 나에겐 너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신기한 존재이며 네 잎 클로버이기 때문이거든(자식이~)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항상 한가득 빛나는 날들을 만들고 있을 것 같아서 날개 달린 마음으로 다시금 힘차게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자. 친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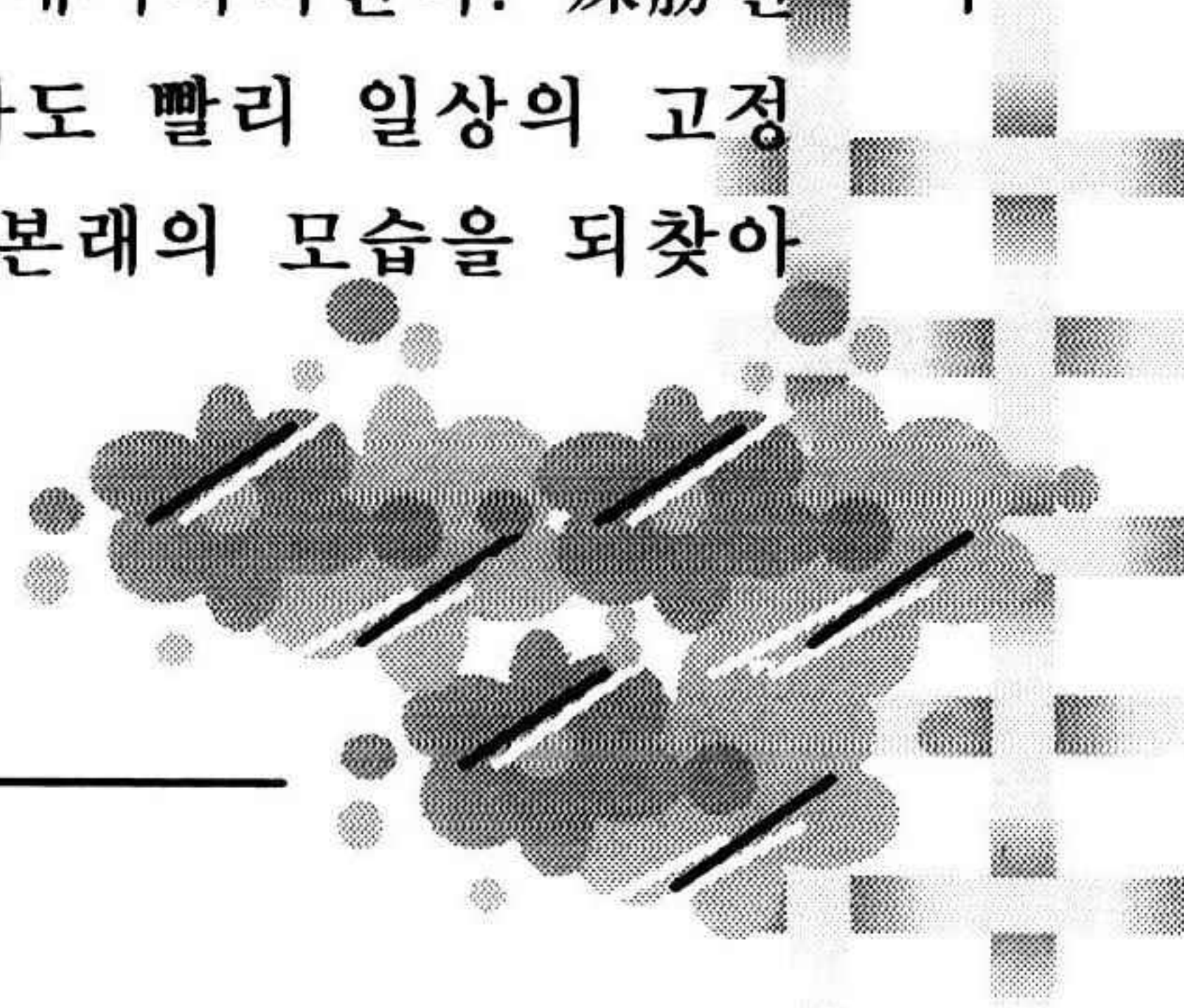


## 不信自殊勝 하고 甘爲下劣人也리라

정공(正空) / 사집-23호

스스로의 한계점을 세워서 더 이상 어떤 일을 해 낼 수 없다고 굳게 믿으므로 생겨나는 문제점이다.

몇 일전 서장을 공부하다 문득 느낀 바다. 해보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련다는 암묵적인 말을 이 글 자체는 범부가 자신이 부처라는 생각을 짓지 않고 범부로 머무는 것을 경책하는 글이다. 하지만 그렇게 높게 의미를 잡지 않아도 우리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돌이켜 본다면 아니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익숙해진 생활들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있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이가 궁극에는 되래 출가를 했지만 일상에 머물고 얽매어 수행은 커녕 나쁜 습관도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통곡할 노릇인가. 부모 형제도 버릴 만큼 굳건한 결심인데 下劣한 우리들의 일상이 싫어서 머리를 깎지 않았던가? 점점 승려라는 집단에 익숙하여지며 정체되지는 않고 있으나 강원외 사집이라는 위치에 만족하지는 않나. 신도들 앞에서 가사 장삼 입고 무개를 잡고 있지만 지대방에선 또 다른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殊勝한자 下劣한자는 스스로 마음을 열어 매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 상황을 과거에 기준점을 맞추고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한다. 우리 치문반 때는 우리 사집반 때는 어떠했다. 참으로 과거에 집착하여 현재를 잃어버린 처사가 아닌가. 그리고 대중이란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수승한 것들을 일거에 내어쳐버린다. 殊勝한 개인들이 모여 범부로 전락해 버린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의 고정관념과 범부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殊勝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불국토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 무 제

청산(靑山) / 사집-23호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수행자로서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수행을 올곧게 하고 있는가? 뒤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움에 머리를 들 수 없으니 시주의 은혜, 일체의 은혜에 그 빛을 갚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생각하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업이 되지 않게 이 육신인 자동차를 마음이라는 운전수가 운전을 잘 해야 될 것이다. 마음은 어찌 보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고 가장 가깝게 있는 게 마음인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항상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 간 데 없이 윤회해야 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처절하리만치 안타깝고 불쌍하다 부디 부디 발심하여서 분심, 신심, 의심의 3대 요건을 갖추어 이 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세생생에 벗어나지 못하니 간절히 이 공부를 마쳐서 일체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발원해야 할 것이다. 꿈같은 세상 환 같은 세상을 눈 뜬 봉사처럼 살지 말고 마음의 눈을 열고 지혜롭게 신명나게 이 생을 살아가야 하리. 나는 이 인간의 몸을 받기까지 과거 생에 얼마나 구르고 굴려서 인간 몸을 받았든가. 인간 몸 받은 것을 감사히 생각해서 왜냐면 인간만이 부처를 이룰 수 있으니까. 지금 보배 있는 데에 왔으니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이 생에서 공부를 마쳐서 세세생생에 자유로운 대 자유인이 되기를 일체 부처님과 마음속 자성 부처님께 머리 숙여 발원하옵시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무 제

도근(道勤) / 사집-23호

하늘과 땅은 모든 만물을 만들어 내는 기운이요. 불법의 자비스러운 도는 한 집안의 모두의 일이요. 염불소리와 간경소리가 가득 차 송광사 도량 내에 찾아든 참배자와 소원을 축원하는 축원문, 지장전에서는 49재 염불소리에 영가마다 원친을 벗어나고 보조지눌 스님의 감로탑 아래 새둥지의 모습이 아름다운 지붕 봉우리 하나하나 교화하니 신령스런 것이 담겨 있는 듯 하여 오늘도 지운 강주스님을 모시고 강의 받는 학인 하나하나 인연이 전생에 어떤 인연이기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나 말인가. 좋은 씨앗은 좋을 열매 이루어진다. 모두가 다 갖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귀중한 마니주가 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니라.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보통 때의 기분이 너무 가벼웠음을 알았다.

말없음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말이 조급했음을 알았다.

일을 되돌아본 뒤에야 앞날에 시간을 마구 썼음을 알았다.

문을 닫아건 뒤에야 앞서의 사귀이 지나쳤음을 알았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예전에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다.

정을 쏟은 뒤에야 보통 때 마음 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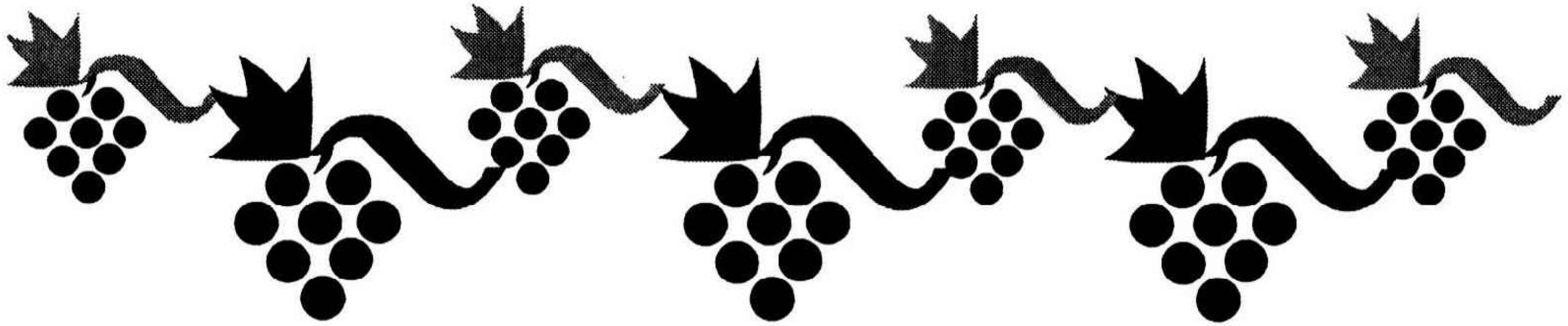


# 오 도 송

승법(承法) / 사집-23호

산 속에는 녹음이 짙어지고  
들판에는 풀꽃이 살짝 웃고  
시정(市井)에는 사람 꽃이 맵시 나고  
정혜사는 결사가 맺어지고  
송광사는 전통이 이어진다.





## 공양 이후의 것들 . . .

수진(修真) / 사집-23호

따당 • 땅 • 땅 • 땅 • 땅 • 따땅 땅 . . .

공양 종소리가 들리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신도님들이 공양을 하러 배식판 있는 쪽으로 몰려든다. 우왕좌왕.....

10여분이 흐르자 본격적인 게임(전쟁)이 시작되었다.

“보살님 식판은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깨끗이 닦아주십시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와 휴지, 비닐류 등은 분류해서 버려 주십시오.”

처음에 질서 있게 잘 되는데 어느 순간 방심하면 짬통에 휴지가 담겨져있고 그릇 또한 찌꺼기가 안 닦이고 그대로 남겨져 있다. 나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한다. 불교에서는 ‘삼륜’이 청정하다[공양물(시주물)+공양을 주는 사람+받는 사람 이 셋이 청정하다는 것이다.]고 한다.

절집에서는 스님들이 공양을 하기 전에 ‘오관계’를 계송으로 염하고 나서 먹고 싶은 만큼 밥과 반찬을 덜어 공양을 다 마친 후에는 단무지나 김치조각으로 자기가 먹은 발우를 깨끗이 닦아 마무리를 한다. 절집에 오는 신도님들도 공양하기전 조금이나마 음식물에 대한 고마움과 공양을 마친 후 뒤 마무리를 깔끔히 잘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먹는 시간은 잠시지만 공양물을 준비하고 차리는 과정과 공양을 끝내고 마무리 하는 과정이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행동으로 하지 못하는 게 중생들의 바꾸기 힘든 ‘습(習)’인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절 집 밖에서는 환경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다. 오늘도 길을 걷다가 문득 담배꽂초가 보여서 무심결에 주웠다. 바로 시간을 정해서 청소하는 것이 아닌 ‘무심(無心)’결에 습관적으로 주운 것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